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41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8년 4월 15일

[1]



金在淳회장과 함께 21세기로 再發進

관약추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체제하에서 서울대 총동창회는 금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새출발의 거보를 내디뎠다.

먼저 金在淳회장의 제3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신입회원을 환영하면서, 동창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다시 한번 기약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경제난국을 토대로 위축되기 쉬운 동창회의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하면서 21세기로 웅비할 것인가가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경륜이 넘쳐나는 金在淳회장을 우리의 리더로 다시 추대한 것은 바로 이같은 역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피력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동안 우리 동창회는 외형적으로나, 내실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 회비수입이 미흡했지만 재학생과 모교교수를 지원하는 장학금과 연구비의 규모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동창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확장되어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5대양 6대주로 민족의 대학, 국민의 대학인 서울대의 기상이 뻗쳐 나

제도약의 기회로 삼자

가지 않았던가.

또 국내 지방의 동창회 결성과 활동도 눈부시고, 직장 지부도 날이 갈수록 단합의 강도를 더 해 가고 있다. 90년대는 「서울대인의 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계를 비롯한 각계에 동문들의 진출이 눈부셨고 그 활동도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

리는 다시한번 동창 의식을 가다듬어 앞으로의 시대를 영광스런 서울대인의 시대로 재창출해 나가도록 하자.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동문 모두가 모교와 동창회를 위하여 또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배전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타 대학과 동창회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 이상으로 우리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서울대총동창회 관약대상」도 새로이 제정된 만큼 모교를 빛내고 사회와 국가에 크게 공헌한 동문을 앞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뜻있는 일이다. 동문 모두가 관약대상의 수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 나간다면 동창회의 앞날은 21세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 올 천년 즉 새로운 밀레니엄에도 휘황찬란하게 빛나리라. (均)

8개 우수지부·유공동문 3명 표창...결산안도 의결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제정·내년 총회서 시상키로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3월 28일 신라호텔 2층 다이너 스티홀에서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본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모교 尹天柱, 權彞赫, 趙完圭전임총장,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李相沃대학원장 등 보직교수 및 동문 3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金在淳회장, 모교 鮮于仲皓총장의 인사말에 이어진 우수지부 표창에서 해외지부상은 뉴욕지부(회장 尹延玉)·브라질지부(회장 沈載鳳), 지방지부상은 광주·전남지부(회장 李乃均)·안동지부(회장 裴元煥), 직장지부상은 도로공사지부(회장 姜龍圭)·농수산물유통공사지부(회장 趙東玉), 기·과별상은 약대11회(회장 李甲烈)·문리대64회(회장 鄭昭盛)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단과대학(원)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李龍兌 前자연대동창회장, 李喆玉 前보대원동창회장, 朴重培 前환대원동창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權彞赫전임총장은 신입회원 환영사를 통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여유있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으며 올해 자연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李在星 동문은 답사를 통해 『격동의 반세기를 민족과 함께 걸어왔던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안전심의에서 본회 결

산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차후 운영위원회를 구성 시상종류와 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임원개선을 통해 제17대 회장에 金在淳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하고 감사에 李基雄·方孝宣동문을 재선임했으며 부회장 선임은 金희장에게 위임했다.

金희장은 회장수락 인사말을 통해 『다시금 회장에 추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경륜을 모두 쏟아 동창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蔡賢九(82년 師大卒)동문과 金芝惠(컴퓨터공학과 4년)양의 사회로 진행된 친목과 단합의 2부 시간에서 尹天柱전임총장은 건배사를 통해 『IMF체제하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 동문들

의 저력을 발휘해 열심히 이겨 나가자』고 말했다.

모교 혼성합창단 OB팀의 「남이 오시는지」 「남촌」 「Oh! Happy Day」 공연과 모교 아마츄어 오케스트라 현악4중주의 「My Way」, 관악6중주의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등의 연주하는 참석자들의 열띤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행운대상 추첨을 통해 尹世榮SBS회장이 협찬한 컬러TV(2대)는 崔永洛(59년 師大卒)·金惠羅(96년 家政大卒)동문, 玄在賢동양그룹 회장이 협찬한 가스오븐레인지 趙澈元(59년 師大卒)동문이 각각 당첨의 행운을 안았으며, 李俊鎔대림그룹 회장이 협찬한 오토바이에 당첨된 朴世熙(59년 文理大卒)동문은 오토바이를 모교에 기증했다. <경품 협찬자 명단 4면>

3개 단기과정 준회원 영입 해외지부 분담금 책정키로 「학술논문 공모」제도 운영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동창회 제137차 이사회 및 재단법인 관악회 제74차 이사회」에서 동창회 9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97년 결산안을 심의하고 총회에 상정했다. 또한 재단법인 관악회 97년도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참석자들은 기타 안전으로 환경대학원 도시환경 고위정책과정, 간호대학 가정간호 수습과정, 경영대학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등의 3개 단기과정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영입키로

의결했다.

또한 해외지부에 분담금을 책정, 지부 지원사업의 재원을 자체부담하게 하고 통일된 명칭의 동창회기를 제작, 지원함으로써 해외지부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재학생의 면학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일정한 테마(주제)를 선정, 대학생의 참신한 의견을 듣는 「학술논문 공모」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의결했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운영방법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협의했다. <變>



광주·전남지부, 안동지부가 우수지방지부상을 수상했다.



모교 崔松和부총장이 행운상 추첨을 했다.



모교 아마츄어 오케스트라의 공연.



동창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회.

미술작품

金新顯作



「봄의 소리」 45×36cm, 한지·아크릴·오일, 1997.

(작가 약력)

- △62년 미대 졸업
- △60~62년 대한민국 국전3회 입선
- △73~97년 한국화회전
- △73~87년 한국미술협회전
- △75~97년 5·8동문전
- △80~97년 호을회전
- △88년 제1회 개인전
- △93년 한·중 미술전
- △95년 한·인도전
- △97년 제2회 개인전
- △현재 한국미협, 한국화회, 5·8동문회, 호을회 회원

주요목차

- 국정에 바라는 서울대인의 목소리 6~7면
- 閔丙天·董勳동문
- 서울대가족 8면
- 柳根淑동문
- 동문을 찾아서 11면
- 대한약사회 金熙中회장
- 화제의 동문 18면
- 朴鍾敏·趙顯權동문
- 기획탐방 19면
- 동아제약·국제상사

「국민의 정부」에 서울大人 대거 기용

金鍾泌총리서리 등 주요부처장에

金大中대통령 취임후 단행된 첫 組閣에서 모교 출신 동문들이 대거 기용됨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화합과 도약의 새출발에 있어 서울대인의 책무가 그 어느때 보다 무거워졌다.

金대통령은 지난 3월 3일 국무총리 서리에 金鍾泌(46년 師大入·本會 顧問)자민련 명예총재를 임명하는 등 17개 부처의 조각을 완료,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에 李揆成(63년 商大卒)前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 朴相千(62년 法大卒)국민회의 원내총무, 국방부 장관에 千容宅(31기 AMP)국민회의 의원, 행정자치부 장관에 金正吉(28기 ACAD)국민회의 부총재, 교육부 장관에 李海瓚(72년 文理大入)국민회의 의원, 과학기술부 장관에 姜昌熙(22기 ACAD)자민련 사무총장, 농림부 장관에 金成勳(62년 農大卒)중앙대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金善吉(53년 文理大入)자민련 의원, 산업자원부 장관에 朴泰榮(66년 商大卒)前국민회의 의원, 정보통신부 장관에 裴洵勳(66년 工大卒)대우 프랑스본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崔在旭(36기 ACAD)前자민련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朱良子(66년 大學院卒)前자민련 의원, 노동부 장관에 李起浩(70년 商大卒)노동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에 李廷武(64년 法大卒)자민련 원

내총무를 임명했다.

17부에 14명 등용

이번 조각 결과 17개 부처의 수장자리에 14명의 동문을 임명하는데 이어 지난 3월 4일 국가안전기획부장 李鍾贊(72년 行大院卒)국민회의 부총재, 기획예산위원회장에 陳稔(63년 商大卒)기아그룹 회장을 임명했다.

또한 3월 6일 장관급 인사에서 국무조정실장에 鄭海湧(68년 法大卒)前통상산업부 장관, 금융감독위원회장에 李憲宰(66년 法大卒)비상경제대책위 실무기획단장을 임명했으며 田允喆(65년 法大卒)공정거래위원장은 유임됐다. 한국은행 총재에 全哲煥(61년 商大卒)충남대 교수를 발탁했다.

이어 3월 8일 검찰총장에 金泰政(64년 法大卒)검찰총장을 재선임하고, 통상교섭본부장에 韓惠洙(71년 商大卒)前산업자원부 차관, 법제처장에 金弘大(70년 行大院卒)법제처 차장, 국가보훈처장에 金義在(62년 法大卒)보훈처 차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제처·보훈처장도

외교통상부 차관에 宣峻英(62년 法大卒)駐제네바대표부 대사, 통일부 차관에 丁世鉉(71년 文理大卒)민족통일연구

원장, 국방부 차관에 安秉吉(27기 AMP)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행정자치부 차관에 石泳哲(73년 環大院卒)지방행정연수원장, 문화관광부 차관에 辛鉉雄(68년 文理大卒)문체부 차관보, 농림부 차관에 金東泰(66년 農大卒)농업진흥청장, 산업자원부 차관에 崔弘健(66년 法大卒)특허청장, 정보통신부 차관에 鄭弘植(30기 ACAD)정통부 정책실장, 건설교통부 차관에 孫善奎(64년 法大卒)한국감정원장을 임명했다.

16청에 10명 임명

관세청장에 嚴洛鎔(71년 法大卒)관세청장, 조달청장에 姜最薰(76년 行大院卒)조달청장, 산림청장에 李輔植(62년 農大卒)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에 秋俊錫(71년 商大卒)중소기업청장이 유임됐으며, 예산청장에 安炳禹(70년 法大卒)재경부 예산실장, 경찰청장에 金世鉉(83년 行大院卒)경찰대학장, 농업진흥청장에 金剛權(64년 農大卒)농업과학기술원장, 특허청장에 金守東(68년 法大卒)특허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朴鍾世(66년 文理大卒)식품의약품안전청 독성연구소장을 발탁했다.

이밖에 趙健鎬(66년 法大卒)총리비서실장을 재선임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에 安繁一(65년 法大卒)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감사위원에 金秉學(66년 法大卒)대전지검장,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에 尹源培(69년 商大卒)경실련 부위원장, 공무원 교육원장에 朴容丸(66년 文理大卒)前총무처 기획관리실장,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에 羅鍾一(63년 文理大卒)前대통령직인수위 행정실장, 2차장에 辛建(63년 法大卒)前법무부 차관, 기조실장(1급)에 李康來(84년 行大院卒)국민회의 총재 특보를 각각 임명했다.

한편 3월 13일 소청심사위원장에 梁鍾釋(73년 農大卒)前내무부 차관보를 기용하고 16일 공식중인 법무부 차관에 崔慶元(67년 法大卒)법무부 검찰국장장을 임명했다.

또한 3월 19일 국민고충처리 위원장에 朱光逸(65년 法大卒)前서울고검장, 외교안보연구원장에 朴尙植(59년 文理大卒)駐싱가포르 대사를 임명했으며 3월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金鍾泌 국무총리 서리



李揆成 재경부장관



千容宅 국방부장관



李海瓚 교육부장관



金成勳 농림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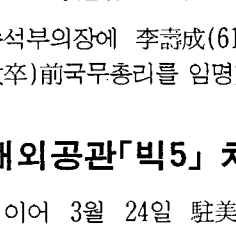
朴泰榮 산업부장관



崔在旭 환경부장관



李起浩 노동부장관



수석부의장에 李壽成(61년 法大卒)前국무총리를 임명했다.

李洪九(53년 法大入)국회의원, 駐日대사에 金奭圭(62년 文理



朴相千 법무부장관



金正吉 행자부장관



姜昌熙 과기부장관



金善吉 해양부장관



裴洵勳 정통부장관



朱良子 보건부장관



李廷武 건교부장관

大卒)前외교안보연구원장, 駐中대사에 權丙鉉(63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駐러시아대사에 李仁浩(55년 文理大入)駐핀란드대사, 주UN대표부 대사에 李時榮(59년 文理大卒)駐프랑스대사를 임명했다. (雙)

정기총회 경품 협찬해주신 분

金在淳	샘터사 이사장	오디오	1세트
鮮于仲皓	모교 총장	어학교재 테이프	1세트
鄭宗澤	충청전문대 학장	자전거	1대
河永基	前한국은행 총재	진주함	10세트
金相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삼양사 선물세트	30세트
具平會	무역협회 회장	CD플레이어	2대
姜信浩	동아제약 회장	라피네화장품	10세트
朴晟容	금호그룹 명예회장	제주항공권(2인1조)	2매
李乃均	삼화도자기 대표	삼화도자기	20세트
徐廷旭	SK텔레콤 사장	휴대폰	1대
趙南煜	삼부토건 회장	식사권(4인1조)	2매
元容勳	대림통상 대표	대림압력솔	3대
李竣鎔	대림그룹 회장	대림오토바이	1대
孫京植	제일제당 회장	제일제당 생활용품	20세트
尹世榮	SBS 회장	컬러TV	2대
卞圭七	LG상사 회장	LG신사복 상품권	1매
李世馥	나드리화장품 부사장	나드리화장품	10세트
金恒德	SK그룹 부회장	SK주유권	2매
朴根浚	대한제당 부회장	대한제당 선물세트	12세트
朴容晟	OB맥주 대표	와인(마주앙)	10박스
玄在賢	동양그룹 회장	동양 가스오븐레인지	1대
鄭夢準	국회의원	현대 유무선전화기	2대
文國現	유한킴벌리 대표	유한킴벌리 선물세트	16세트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도는 나에게 너무나 먼 나라였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의 인도인 친구를 사귀었고, 수십 명의 인도 학자들로부터 논문별쇄 요청을 받은 것 등이 인도와 맺은 교분의 전부였다.

우리 나라가 한참 잘 되어갈 때 한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인도 출신 교수는 『한 마디로 인도에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인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전 인구 만한 수의 억만장자가 있는가 하면,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핵무기 미사일 최신 전투기 등을 만들고 있지만, 문화 기구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는 가구가 대다수이다. 정치적인 혼란, 신분 종교 종족간의 갈등, 사회의 불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 요점이다.

억만장자·빈민층 부지기수

이번에 인도에 일주일 다녀온 것은 힌두교도들의 성지라는 바라나시의 바나라스 힌두 대학교의 수학 과 창설 백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초청되었기 때문이다. 이 도시는 서양인들에게 city of learning and burning으로 잘 알려져 있다. 거리에서 본 갠지스



朴世熙

모교 자연대 교수



인도에서 느낀 일

(힌두어로 강가) 강변(우리말로도 강가), 석가 유적지인 사르나트와 돌아오다가 찾아본 타지마할에서는 간곳마다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손을 내미는 사람, 집적대는 사람, 속임수를 쓰려는 상인들이 너무나 많았으며, 택시 기차 비행기를 탈 때, 은행에서 돈을 바꿀때 등 한 번도 수월히 넘어가는 일이 없었다.

수 많은 성인들이 몇 천년 동안 참된 삶을 가르쳐 왔는데, 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가? 눈물겹도록 어려운 삶은 석가모니 시대보다 얼마나 나아졌을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나마 이들이 그 어려움을 참고 무던히 살아오고 있는 것은 그같은 가르침 덕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거기에는 유서 깊은 대학들이 있고, 국제회의에 나온 젊은 학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 주었다.

진지한 모습의 젊은 학자들

30년 전의 어려웠던 우리 시대를 돌이켜 보면서, 이들이 인도의 참된 희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귀국 후에 거리의 풍경이나 자동차의 홍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평소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너무나 고급스러운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해진다. 실제로 우리들은 속된 말로 너무나 방방 튀는 생활을 해온 것이 아닐까? 이럴 때마다 인도에서 만난 젊은 학자들의 순박하고 진지한 얼굴이 떠오른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지방자치의 척도는 환경

金明炫(65년 文理大卒)서울시의회 의원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뒤늦게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산업화의 과정속에서 우리의 환경은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뛰기전에 생각할, 뛰면서 고려할 여유도 없이 급속하게 진행된 중앙집권적 산업화가 열매를 맺을 겨를도 없이 IMF한 파가 몰아치게 된 시점에서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은 양립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명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시대에 환경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선 민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빚는 환경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획·검토와 장기적 안목 필요

이러한 환경분쟁은 주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제도 및 민주적인 연습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먼저 여유있는 계획과 안목을 가지고 산업화 과정에서

의 환경오염을 제거 방지하기 위한 제도화와 공감대형성, 그리고 꾸준한 환경 교육을 통해, 또한 가장 큰 장점이 민주주의 확립을 통한 생활과 의식속에서의 환경을 다져 놓은 점이라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와 비슷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을 가진 문제로서 종합적인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나 특정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될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로서 가장 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비정치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지방정부가 순종하는 방식의 중앙집권제는 막을 내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소규모 개발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신개발 보다는 기존시설의 운영의 효율과 가동을 위한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여하고 공감대 넓혀가야

이러한 점들은 근시안적 시각에 의한 정치적 결정을 지양하고 충분한 기획과 검토가 앞서서 장기적인 안목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생활속의 민주주의를 이룩해내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 초기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또한 경제성 우위의 논리 보다는 더 멀리 가치문제에 비중을 두는 사회 구조적인 가치관의 확립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더불어 환경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어 되돌아 왔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생활속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우리 후세들에게 생활속에서 환경 교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21세기 지방 자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환경이 그 척도가 될 것이며 그만큼 우리에게 삶의 원천이 되는 환경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고장 우리 나라입니다.

1997년도

대 차 대 조 표

1997. 12. 31.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1. 유동자산	(2,468,202,894)	1. 유동부채	(70,588,599)
(1) 당좌자산	(2,468,202,894)	1) 예수금	7,814,349
1) 현금과 예금	2,160,346,443	2) 미지급금	37,774,250
2) 미수금	29,200,000	3) 가수금	25,000,000
3) 미수수익	231,519,971	2. 고정부채	(16,186,660)
4) 받을어음	4,300,000	1) 수입보증금	2,500,000
5) 제세선납금	42,836,480	2) 퇴직급여 총당금	13,686,660
		자 본	
		1. 자본금	(4,161,271)
2. 고정자산	(19,744,182)	1) 기본금	4,161,271
1) 지급보증금	2,000,000	2. 당기발매처분 이익잉여금	(2,397,010,546)
2) 비품	31,174,900	1)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2,397,010,546
감가상각충당금	13,430,718	※ 당기순이익	(379,158,668)
합 계	2,487,947,076	합 계	2,487,947,076

결 산 공 고

손 익 계 산 서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1. 매출액	(190,220,000)	14) 장비	1,821,181
1) 회보 광고료	190,220,000	15) 잡손실	72,996
2. 매출원가	(288,637,081)	16) 차량유지비	0
1) 간접물비	288,637,081	17) 서울대지원	0
3. 매출총이익	△98,417,081	18) 서울대발전기금 지원	0
4. 목적사업비	(930,786,445)	19) 교육목적사업지급준비금	△225,668,810
1) 인건비	97,794,970	5. 목적사업 차감후 이익	(△1,029,203,526)
2) 회의비	24,597,350	6. 영업외 수익	(1,634,031,004)
3) 여비교통비	4,623,950	1) 회원 회비	650,686,765
4) 전산화비용	23,201,240	2) 수입이자	225,668,810
5) 사무비	17,168,310	3) 찬조금	757,665,429
6) 세금과 공과	3,274,900	4) 장수입	10,000
7) 보험료	2,909,890	7. 영업외 비용	(225,668,810)
8)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	8,397,750	1) 교육목적사업지급준비금환입액	225,668,810
9) 감가상각충당금	13,430,718	8. 특별손실	0
10) 천목사업비	59,148,780	1) 고정자산처분손실	0
11) 지원사업비	56,414,125	9. 법인세 차감전 이익	(379,158,668)
12) 조직강화비	255,194,097	10. 법인세 등	
13) 관악회기금대출	588,404,998	11. 당기순이익	(379,158,668)

위와 같이 공고함
1998.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金在淳

국정에 바라는 서울大인의 목소리

총합적·체계적·장기적·균형적 안보정책 세워야

많은 사람들이 탈냉전시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분명히 바깥세상은 美·蘇를 중심으로 한 냉전상황이 가시진 따뜻한 세상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아직 얼어붙어 있고 세계도처에서 새로운 경쟁과 싸움이 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보정책도 미국같은 대국의 시각에서 판단하여 짜여지거나 새로운 위협을 외면하여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미국은 主敵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한 반도를 둘러싼 정책에서 두가지 지향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유일 패권국 미국에 도전할 다른 패권국이 동아시아에서 등장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견제한다. 북한의 급속한 붕괴나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한반도 주변 상황 미묘해

다른 하나는 패권적 지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정치, 군사, 산업 등의 우위를 기반으로 유리한 통상 및 금융질서를 형성하려 애쓰고 있다. 최근에 일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적 곤란과 IMF 시대의 전개를 미국의 장기적 대전략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일본은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大円貨經濟圈을 형성하고 아울러 군사력의 확충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 패권에의 도전의 꿈을 안고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급성장하고 있는 경제력을 더욱 확충하고자 大中華經濟圈의 형성을 꾀하고 핵실험을 계속하여 21세기 중반에 제일의 세계적 패권국으로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러시아도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지난 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힘의 축적

“첫째, 경제·정치 등 모든 분야를 고려하는 「총합안보」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안보는 북한을 전제로 하지만 내외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전쟁방지와 교류라는 모순적 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

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 협력보다는 미국치중의 노선을 걷고 있다. 북한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를 막아줄 유일한 존재가 미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북우위에 있는 한국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남한내의 갈등조장과 韓·美 이간 등의 종래방식을 그대로 택하면서 한반도를 그의 목표아래 도모하

려 한다.

주변상황이 이렇게 미묘한데도 국내적으로는 경제안보가 위험수위에 있고 북풍사건 폭발에서 보듯 국가수호의 원초적 능력마저 의심받을 일들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은 한 수레바퀴

그렇다면 우리 안보정책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기본사고」와 「기본개념」만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모든 분야를 망라적으로 고려하는 「총합안보」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부도위기는 현상적으로는 경제상황이지만 국가존립에 관계되는 안보상황이다. 수백억달러의 곡물 및 유류(동력)수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장차 있을 식량안보와 석유안보를 감당할 수 없다. 북풍사건의 폭발은 정치적 의미를 갖겠지만 안보능력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이같이 안보정책은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고려하는 「총합안보」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안보정책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전제로 하지만 내외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만을 위해서 대북 환심정책을 쓰거나, 반대로 지나친 위협의 강조와 대북 不相容의 적대정책을 추진한다면 내외적 합의를 끌어낼 수 없다. 또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추종만 하다가는 큰 국익손실을 입게 되고 북한문제에 너무 집착하여 우방을 소홀히 하면 고립무원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



閔丙天 서경대 총장

56년 문리대 정치학과 졸업
60~84년 한국정치학회 회장
63~71년 국방대학원 교수
72~95년 동국대 안보연구소장, 총장
76~98년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국방부·국가안보회의·외무부 자문위원
83~90년 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장
96~98년 서경대 총장

은 서둘러서는 안된다.

셋째, 평화(전쟁방지)와 통일(교류)이라는 모순적 정책을 균형있게 조화시켜야 한다.

평화와 통일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어느 쪽만을 추진하기 어렵다.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자주국방력도 갖추면서 韓·美 안보체제도 굳건히 해야 하며 북한과의 화해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협력도 필요하다. 두 측면은 대립적이거나 선후의 개념일 수 없다. 그런데 적지않은 사람들이 선평화·후통일을 말하고 있으니 딱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안보정책은 총합적, 체계적, 장기적, 균형적 안목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새정부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의 여망을 이룩하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997년도

대 차 대 조 표 결 산 공 고 손 익 계 산 서

1997.12.31.현재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3,144,470,698)	I. 유동부채	(15,366,776)
(1)당좌자산	(3,144,470,698)	1.매입채무	3,918,176
1.현금과 예금	2,792,674,315	2.예수금	1,038,720
2.매출채권	52,688,600	3.부가세예수금	8,592,530
3.미수익	169,860,913	4.가수금	24,350
4.가치급금	25,000,000	5.예수보증금	1,793,000
5.제세선납금	104,246,870	II. 고정부채	(1,191,095,434)
II. 고정자산	(1,518,197,086)	1.임대보증금	865,600,000
(1)투자자산	(2,584,672)	2.퇴직급여충당금	21,975,601
1.전신전화가입권	2,584,672	국민연금퇴직환금	4,767,200
(2)유형자산	(1,515,612,414)	3.교육목적사업자금준비금	308,287,033
1.토지	655,715,410	부 채 총 계	1,206,462,210
2.건물	1,077,258,031		
감가상각충당금	335,958,585	자 본	
3.구축물	353,031,313	I. 자본금	(835,808,858)
감가상각충당금	273,142,317	1.기본금	713,234,880
4.기계장치	74,222,072	2.기분잉여금	122,573,973
감가상각충당금	66,957,627	II. 이익잉여금	(2,620,396,716)
5.차량과 운반구	18,400,960	1.차기이월이익잉여금	2,620,396,716
감가상각충당금	11,123,343	2.당기순이익	(560,411,463)
6.비품	79,269,218	자 본 총 계	3,456,205,574
감가상각충당금	55,102,718		
자 산 총 계	4,662,667,784	부채와 자본총계	4,662,667,784

1997. 1. 1부터 1997.12. 31까지 (단위: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매출액	(326,939,900)	17.청소비	2,230,610
1.임대수입	197,604,400	18.지급수수료	2,556,000
2.유지수입	129,335,500	19.잡비	1,692,000
II. 관리비	(335,329,700)		
1.급여	92,741,000	III. 영업이익	△8,389,800
2.상여금	21,647,760	IV. 영업외수익	(889,101,464)
3.퇴직급여충당전입액	8,865,456	1.동창회전입	588,404,998
4.복리후생비	6,860,610	2.이자수익	293,220,317
5.여비교통비	1,128,000	3.찬조금수입	6,150,000
6.접대비	200,000	4.잡수입	1,326,149
7.통신비	3,812,530	V. 영업외비용	(317,121,147)
8.수도광열비	44,595,077	1.교육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317,021,137
9.세금과 공과	36,443,624	2.잡손실	100,010
10.감가상각비	58,521,227	VI. 경상이익	(563,590,517)
11.수선비	30,183,016	VII. 특별이익	0
12.보험료	3,497,510	VIII. 특별손실	(3,179,054)
13.차량유지비	5,479,380	1.전기오류정손실	3,179,054
14.도서인쇄비	160,000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60,411,463)
15.사무비	4,625,000	X. 법인세비용	0
16.소모품비	10,090,900	XI. 당기순이익	(560,411,463)

위와 같이 공고함 1998. 3.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金 在 淳

국정에 바라는 서울大人の 목소리

서울대학은 民族의 相續者

—祖國의 平和統一을 促成하며

먼 훗날 史家들이 20세기 후반 50년의 南北분단 시대를 서술할 적에 다음과 같은 관점이나 해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外勢에 의해 나라땅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 政權도 서기 전에 南에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라는 명제 아래 國立으로 「서울대학」을 세우고, 北에서도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라면서 역시 「김일성 대학」을 세웠다. 60년대 중반이후 南과 北에서 체제의 이른바 「파워 엘리트」는 각기 두 대학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냉전체제 속에서 휴전선이라는 높은 장벽으로 인해 교호관계는 없었으나 體制의 優劣를 가름하는 경쟁에서 각각 핵심적 기능을 다했다.

학교설립 반세기의 세월이 지난 20세기 말의 시점에서 南北사이에는 評點이 매겨졌다. 南은 市場경제원리 위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압도적 우위는 물론이고, 자유민주체제는 인류가 견지해야 할 價値이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나 주체이데올로기나 하는 사회주의체제는 인간의 생존양식에서 별로 쓸모없는 虛構임을 인류 문명사이에 實證했다. 그 의미심장한 공헌의 바닥에는 「서울대학」이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北에서는 「知性」이 배제되고, 토론이 없는 독특한 체제속에서 「김일성대학」은 체제경쟁에서 좌절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는 그 이후 통일국가가 체제선택을 하는데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21세기 문턱에서 뜻있는 知性人들 사이에는 일대自省의 氣運이 일기 시작했다. 세계사의 흐름속에서의 「한민족 장래문제」를 냉철하게 가늠하며 知識人들로부터 행동으로서 南北平和統一을 촉성할 「志士」가 될 것을 다짐하고 나섰

다. 격변이 연속되던 시기에 「서울대학 사람」들 가운데는 곡학阿世로 정치에 奸智를 제공하고, 官立학교의 나쁜 습성을 이어받아 出世주의로 勢道에 영합하면서 歷史의 물줄기를 오도하고, 큰 不正 非理사건에는 거의 연루되어 백성들을 실망시켰던 오욕과 수치를 청산하자는 반성도 일기 시작했다. 마침내 통일문제에서 「知性」이 주동적으로 선도하면서부터 상황은 한次元 높은 단계로 진전되었는데, 이는 南北統一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 같은 假想서술은 「서울대학」의 유치한 오만이거나 자존망대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 필자는 지난날 서울대학이 지금의 관악캠퍼스로 옮기던 때에 청와대의 담당비서관으로 심부름했는데, 移轉에 즈음하여 朴대통령이 서울대학 총장앞으로 보내는 親書를 초안하는 글속에 —관악의 기슭에서 「민족의 相續者」를 길러내서—라고 쓴 대목이 있다.

과연 「민족의 상속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天賦의 사명과 책무가 따른다.

정의, 자유, 진리의 바탕위에서 자란 「서울대학 사람」들이 祖國을 近代化하고 민족의 발전역량을 키웠노라고 자부한다면, 21세기 입구에서 해야할 과제는 바로 祖國統一의 促成이다.

「統一조국의 未來像」 설계부터

「서울대학」이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 그것은 相續者답게 萬年미래를 내다보며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나라 안팎에서 저마다 지니고있는 능력을 통일課業에 제공하는 일이다. 민족통일의 엄숙한 과제를 놓고, 논의와 설계에서 그리고 통일정책의 추진과정에서 「知性」은 없고 겨우 3류 수준의 공작꾼이나 첩자

부류들의 천박한 술수와 奸計만이 교잡하는 판이라면 이는 통일을 할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서울대학 사람」 그리고 「서울대학」답게 꼭 해야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란, 먼저 「어떤 통일인가」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며 논의를 주도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統一조국의 未來像」의 설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문제를 놓고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에만 치우친 것 같다. 統一이라는 새 建築을 하자면 처음부터 빈틈없이 바르게 設計해서 탄탄하게 施工을 하도록 해야하겠다. 그런데 서울대학에 知性으로서의 통일논의는 없고, 학교마당에서 학생들이 구호로 외치는 통일논의라면 서글픈 일이다.

國格을 당당한 자리에 세워야

통일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어느날 갑자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실현이 가능한 남쪽에서부터 우리들 노력으로 미리 앞당겨서 바르고 풍족하고 불편이 없는 세상을 차근히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통일에의 「정책」이다.

남쪽 뿐만이 아니고 북녘의 동포들 까지도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하는 멋있고 살기좋은 나라로 다듬어 가는 것이 통일의 길이라고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는 「서울대학」다운 수준과 안목에서 나라가 「品位」를 갖도록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일이 긴요하다. 천박하고 기품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은 남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은 통일을 멀게하는 요인도 된다. 「서울대학 사람」은 저마다 처해있는 자리에서 격조 높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노력을 하고 마침내 나



董 勳 남북평화통일연구소 소장

57년 법대 법학과 졸업
64~71년 서울신문, 경향신문
논설위원
68~74년 대통령 정무, 사정비서관
75~79년 통일원 차관
80년 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
「KOREA and WORLD AFFAIRS」 발행인
88년 동경대학 객원연구원
91년 중국 연변대학 고문, 명예교수
96년 통일고문회의 고문

라의 「國格」이 존대받는 자리에 서게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可謂 난세를 살아온 서울대학 사람, 第一世代는 어느덧 人生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時點이다. 가장 어려웠던 세월, 祖國의 운명과 길을 함께 걸어온 우리들이 꼭 마지막 할 일은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知性으로서 민족의 장래를 같이 고민하며 모두다 제 위치에서 南北平和統一을 앞당기도록 행동하는 知性이 되는 일이다.

북녘의 「김일성대학」도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知性和 민족적 良心에서 함께 나라의 통일을 걱정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거듭 「서울대학은 民族의 相續者」이다.



柳根淑동문

3대에 걸쳐 동문 9명이나 「과외」없이 원하는 학과 척척 붙어

『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꾸며도 그 뜻은 하늘이 이뤄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꼭 서울대 들어가야 한다고 강요한 적도 없고, 무엇을 공부하라고 억지로 권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지켜봐 주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계자녀만 해도 동문이 무려 9명이나 되는 柳根淑(33년 京城師範卒)동문 가족. 85세의 나이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목소리와 온화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시작한 柳동문은 일찍이 개화한 부친의 도움으로 경기여고를 거쳐 경성 사범학교 여자연습과를 나온 신여성이 었다.

師·藥·齒·醫·工大 고루 분포

두메산골 철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5년만에 이화여고 교사였던 남편 金章玉씨를 만나 결혼해 7남매를 낳았다. 柳동문 부부는 자신이 많이 배워 사회에 보탬에 될 수 있었듯이 자식들에게도 많은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행히도 모두들 과외 한번 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어 주었다.

그 중 장녀 金仁姬씨가 부모님의 뜻을 이어 외대 독문과를 나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교육계의 청백리」라 불리는 全東基(58년 師大卒·반포고교 교장) 동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柳동문의 장남인 金弘鎭(65년 藥大卒·前SK제약 상무)동문과 차남 金世鎭(73년 齒大卒·김세진치과원장)동문과는 또다른 인연이라 할 수 있는 사위 全동문이 벌써 오는 8월에 정년퇴임을 한다. 평생을 중등 교육을 위해 일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全동문의 모습을 보면 장모인 柳동문마저 고개가 숙여 진다고.

모교와의 인연은 3대까지 계속돼 사위 全동문의 딸 全惠廷(89년 醫大卒)동문과 남편 張庸柱(87년 醫大卒·단국대 조교수)동문, 그리고 아들 全容佑군도 현재 모교 공대 4학년에 재학중이다.

또한 장남 金弘鎭동문의 아들 金永峻군은 93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여 지금 군의관으로 복무중이며, 여기에 차남 金世鎭동문의 장녀 金明信양까지 올해 의대에 합격해 할머니를 기쁘게 했다.

가족들이 모여 자신이 다녔던 캠퍼스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모교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 특히 柳동문 가족들이 해화동에 살때에는 약대와 치

대에 다니는 두아들의 친구들이 자주 들러 다른 학생들에게 하숙집으로 오해 받은 적이 많다고 한다.

하숙집으로 오해받기도

『자식이 서울대 들어간 것보다 손자들이 입학한 것이 더 기쁘고 자랑스롭 습니다. 더욱이 모두들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녀 기특하죠. 워낙 우리 만사위나 딸이 효성스러워 나머지 아이들도 그렇고 손자들, 심지어 증손자들까지도 늙은 할미를 끔직이 생각하죠』

바로 며칠전에도 올해 의대에 들어간 金明信양이 보행이 불편한 할머니가 행여 답답해 할까봐 공원에 나가 함께 산

책을 즐기기도 했다. 柳동문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법이라며,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인성없는 자녀 교육을 걱정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가족 모두 전통 하나, 물 한 방울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나이 든 우리는 견딜만한데 앞으로도 손주 녀석들이 잘 따라주길 바랍니다』

이처럼 나라 걱정 또한 잊지 않는 柳동문의 모습을 보며, 조국앞에 무한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족안에서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 (美)



앞줄 좌로부터 여섯번째 全容佑, 가운데줄 좌로부터 첫번째 金世鎭, 두명 건너 柳根淑, 뒷줄 좌로부터 金明信, 張庸柱, 全惠廷, 한명 건너 金永峻, 金弘鎭, 全東基동문.

동 정

수 상

▲鄭榮榮(57년 醫大卒·토마스



제퍼슨의대 교수)= 지난 3월 4일 KBS

홀에서 조국의 명예와 인류의 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6회 「해외 동포상(학술부문)」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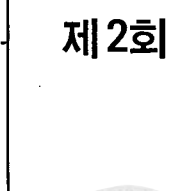
▲魚允培(58년 法大卒·송실대



총장)= 최근 신산업경영대 상에서 「경영문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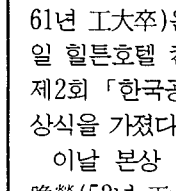
상」 수상자로 선정됨.

▲金承國(60년 文理大卒·단국대 대학원



장)=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표준점자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함.

▲姜碩熙(60년 音大卒·모교 교



수)= 지난 2월 20일 「97 세계음악제」를 개최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보관

문화훈장」을 수상함.

▲金耕宇(64년 法大卒·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근 벤처기업협회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음.

▲崔龍一(67년 工大卒·LG정보통신 전무)= 최근 신산업경영대상에서 「기술관리대상」 수상자로 선정됨.



▲徐鍾學(74년 文理大卒·영남대 교수)=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점자규정을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韓相權(77년 人文大卒·前덕성여대 교수)= 최근 국학진흥에 창의적 실적을 올린 저작자에게 주는 「월봉저작상」 수상자로 선정됨.



▲朴哲浚(89년 醫大卒·모교병원 안과전임



의)= 지난 3월 13일 美안과학회로부터 「젊은 학자賞」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됨.

▲沈甲輔(3기 AMP·삼익물산



사장)= 최근 노사관계개혁위원으로서 개혁과제의 균형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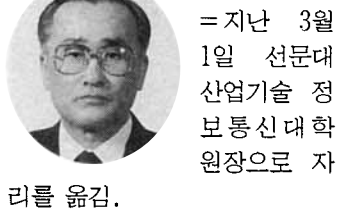
선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동백장)」

을 수상함.

▲朴基億(15기 ACAD·다이어그룹 회장)= 최근 제10회 고려경영포럼에서 「경영포럼대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金在中(53년 工大卒·선문대 공대 학장)=



지난 3월 1일 선문대 산업기술 정보통신대학

원장으로 자리를 옮김.

▲李錫均(55년 商大卒·前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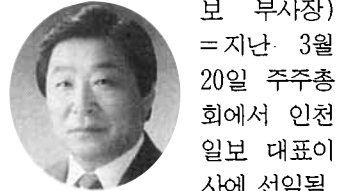


투자자문 사장)= 지난 3월 20일 유성기업(주)의 사외 이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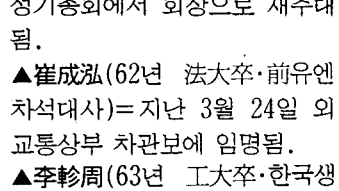
선임됨.

▲金命年(57년 工大卒·자민련



강남갑 지구당 위원장)= 최근 한국과학기술회에서 개최된 한국기술

사회 제17대 회장에 선출됨.



▲吳德均(57년 商大卒·대전엑스포 기념재단 이사장·前충남대 총장)= 지난 3월 1일자로 대전산업대

학교 석좌교수에 위촉됨.



▲劉德澤(58년 法大卒·인천일보 부사장)=



지난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인천일보 대표이사에

선임됨.

▲李炳漸(58년 法大卒·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회장)= 최근 개최된 국제연합식량기구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추대

됨.

▲崔成泓(62년 法大卒·前유엔차석대사)= 지난 3월 24일 외교교통상부 차관보에 임명됨.

▲李軫周(63년 工大卒·한국생산기술연구

원장)= 최근 중소기업학회 회장에 취임함.

▲金相福(63년 文理大卒·할렐루야교회 목사)= 최근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에 선

임됨.

▲趙源永(64년 文理大卒·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 최근 내외경제신문 편집인(상무이사)에

선임됨.

▲崔桓(65년 文理大卒·前서울고검장)= 지난 3월 16일 부산고검장에

선임됨.

▲李明載(65년 法大卒·前대검총무부장)= 지난 3월 19일 대검 중수부장에

선임됨.

▲金曙雄(65년 商大卒·한국일보 편집국장)= 최근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에 선임됨.

▲姜信龜(67년 文理大卒)= 지난 3월 5일 문화일보 편집국장에

선임됨.

▲洪性萬(67년 文理大卒·경향신문 논설주간·本報 論說委員)=

지난 3월 30일 경향신문 사장(발행인 겸 인쇄인)에

추대됨.

▲崔旻(68년 文理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지난 3월 23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위원장에

선임됨.

▲愼克範(68년 敎大院卒·한국교육학회 회장)=

지난 3월 1일 광

대한간협 金花中회장 선출

이사 4명·사무총장 모교 출신



金花中



成玉姬



楊銀淑



李笑雨



李正姬



李順南

지난 2월 26~27일 양일간 열린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金花中(67년 看護大卒·모교 교수)등문이 단독 후보로 출마, 鄭蓮江(63년 看護大卒·중앙대 교수)前회장에 이어 제27대 회장에 당선됐다.

또한 成玉姬(68년 看護大卒·한국보건교육학회 회장·수도여고 양호교사)·楊銀淑(54년 看護大卒·간호대동창회장·前간호협회 감사)·李笑雨(64년 看護大卒·모교 교수)·李正姬(65년 看護大卒·삼성서울병원 간호이사)등문 등이 이사로 선출됐으며, 신임 사무총장에 李順南(92년 保大院卒)등문이 선임돼 여성 등문들의 우면과위를 과시했다.

특히 신임 회장에 선출된 金花中등문은 학계를 비롯하여 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학교보건학회, 가정간호학회, 산업간호학회 등을 역임하면서 각 분야의 간호사업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1923년 「조선 졸업간호원회」에서 출발한 「대한간호협회」는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간호 시범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동아시아 간호포럼의 주도적 창설 등의 사업을 활기차게 펼쳐왔다.

(美)

임됨.

▲趙源永(64년 文理大卒·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 최근 내외경제신문 편집인(상무이사)에 선임됨.

▲崔桓(65년 文理大卒·前서울고검장)= 지난 3월 16일 부산고검장에 선임됨.

▲李明載(65년 法大卒·前대검총무부장)= 지난 3월 19일 대검 중수부장에 선임됨.

▲金曙雄(65년 商大卒·한국일보 편집국장)= 최근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에 선임됨.

▲姜信龜(67년 文理大卒)= 지난 3월 5일 문화일보 편집국장에 선임됨.

▲洪性萬(67년 文理大卒·경향신문 논설주간·本報 論說委員)= 지난 3월 30일 경향신문 사장(발행인 겸 인쇄인)에 추대됨.

▲崔旻(68년 文理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지난 3월 23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기획위원장에 선임됨.

▲愼克範(68년 敎大院卒·한국교육학회 회장)=

지난 3월 1일 광

주대 총장에 선임됨.

▲金善章(69년 工大卒·효성여대바라 환경엔지니어링 부사장)= 지난 3월 13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선임됨.

▲金東信(69년 文理大卒·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난 3월 26일 육군참모총장에 선임됨.

▲成光元(70년 師大卒·前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지난 3월 24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됨.

▲金太文(73년 新大院卒·쌍용연수원장)=

지난 3월 2일 삼구개발(주) 대표이사 회장에 선

임됨.

▲趙文新(76년 醫大卒·울산대교수)= 최근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제5대 회장에 선출됨.

▲金正浩(26기 AMP·前건양(주) 회장·前해병대사령관)= 최근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제6대 총재에

(10면에 계속)

제2회 「한국공학기술상」 수상

李晚榮·吳明·李珉和등문



李晚榮



吳明



李珉和

한국공학원(회장 李基俊·61년 工大卒)은 지난 3월 10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한국공학기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본상 학술부문은 李晚榮(52년 工大卒·한양대 명예교수·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회장)등문, 기술경영부문은 吳明(66년 工大卒·동아일보 사장)등문, 젊은 공학인상은 李珉和(76년 工大卒·메디슨 사장)등문이 수상했다.

李晚榮등문은 정보 및 부호화이론, 암호이론,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이동통신에 관한 학술서적을 미국에서 출간, 우리나라 핵심정보 공학기술의 위상을

높였고 한국형 유도탄 개발, 국내 최초 아날로그식 전자계산기 제작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吳明등문은 체신부 장관 재직시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구축했고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최근에는 환경운동에 크게 기여한 점이 돋보였다.

李珉和등문은 초음파진단기를 국산화했으며 벤처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본상 수상자는 각각 1억원, 젊은 공학인상 수상자는 5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雙)

(9면에 이어)

취임함.

▲金鴻來(36기 AMP·前공군참모총장)=지난 3월 18일 (주)중앙고속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선임됨.

행사·출간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 역정책개발 원장)=지난 3월 24일 하얏트호텔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새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金昌悅(58년 法大卒·한국방 송위원회 위 원 장·本報 論說委員)= 지난 3월 23 일 사무실을 이전함.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19층, 전화: 3219-5001, 팩스: 3219-5019)

▲權英子(59년 文理大卒·국회 의원)=최근 국회 행정위 원회·여성특 별위원회 등 의 소속 상임 위원으로서



▲權英子(59년 文理大卒·국회 의원)=최근 국회 행정위 원회·여성특 별위원회 등 의 소속 상임 위원으로서

그동안의 활동을 담은 의정활동 보고서 「3%, 너무 적지요?」를 펴냄.

▲鄭相九(62년 工大卒·아주대 교수)=최근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인 「Who's Who in the World」 98년판에 등재됨.

▲林範澤(63년 美大卒·현대사 진연구소장)=지난 3월 9일부터 14 일까지 강남 삼성포터 갤 러 리 에 서



「심상의 세계」라는 주제로 9번째 개인 사진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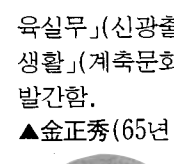
▲文光順(64년 工大卒·한국계 면공학연구 소장)=최근 이스라엘 정 부 초청으로 Interfacial Science Sym-posium에서 「Dimensional Concentration in Interfacial Reactions」라는 주제로 강연함.

▲徐京善(64년 音大卒·한양대 교수)=최근 도쿄에서 일 본 작곡가 협 회 초청으로 한일 작품 교 류음악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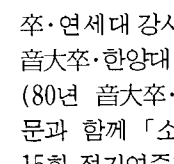


참가, 「플룻과 하프를 위한 시 곡」을 발표함.

▲南喆鉉(64년 保大院卒·경산 대 사회교육 원장)=최근 「보건 교육 및 건강증진」(계축문화 회), 「보건교 육실무」(신광출판), 「건강과 생활」(계축문화회)이란 책을 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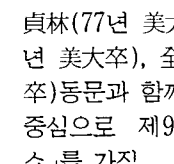


▲金正秀(65년 音大卒·한국관 악협회 서울 지부장)=치 난 3월 27일 문화일보홀 에서 金明珍 (65년 音大



卒·연세대 강사), 趙倫姬(79년 音大卒·한양대 강사), 李承珍(80년 音大卒·영남대 교수)등 문과 함께 「소리울양상블」 제 15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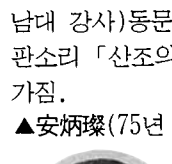
▲趙聖愛(68년 美大卒·한국현 대 관화가 회원)=지난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예 술의 전당 미 술관에서 李 貞林(77년 美大卒), 朴顯淑(79년 美大卒), 全慶鈺(80년 美大卒)등문과 함께 관화 작품들을 중심으로 제9회 「그룹 임경 쇼」를 가짐.



▲李基秀(72년 大學院卒·고려 대 법대학장)=지난 3월 19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동아시아 재정위기와 미국의 무역법과

무역정책」이란 주제로 강연회 를 가짐.

▲成心溫(75년 音大卒·전남대 교수)=지난 3월 31일 전 남대학교 연 주회에서 金 東炫(88년 大學院卒·전 남대 강사)등문의 장고에 맞춰 관소리 「산조의 밤」 음악회를 가짐.



▲安炳燦(75년 新大院卒·경원 대 교수·本報 論說委員)=최근 한국 프레스센터 가 발표한 언 론인 연구저 술 지원대상자에 선정됨.

▲郭文圭(81년 工大卒·동국대 교수)=지난 3월 13일 美공군 국방연구소(AFOSR)로부터 인 공위성기연구 프로젝트를 따 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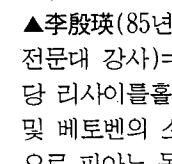
▲金麟惠(84년 音大卒·모교 교 수)=최근 체코 모이테스홀에 서 프레스부르크 체임버오케스 트라와 모차르트의 모테트 「춤 추라 기뻐하라」를 협연함.

▲金益成(85년 美大卒·상명대 강사)=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 까지 신사동 갤러리 우덕 에서 「침묵



-드러냄」을 주제로 4번째 개 인 조각전을 가짐.

▲嚴義卿(85년 音大卒·세종대 교수)=지난 4월 7일 예 술의 전당 리 사이틀홀에 서 피아노독 주회를 가짐.



▲李殷瑛(85년 音大卒·前경성 전문대 강사)=최근 예술의 전 당 리사이틀홀에서 스카라라티 및 베토벤의 소나타 등을 중심 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金泓錫(87년 美大卒·중앙대 강사)=지난 3월 11일에서 22일까지 종로 금산갤 러리에서 귀 국 첫 개인전 을 가짐.

▲梁文禎(88년 音大卒·피아니 스트)지난 3 월 22일 예 술의 전당 리 사이틀홀에 서 베토벤, 모차르트 소 나타 등을 중심으로 귀국 기념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林聖美(88년 音大卒·피아니 스트)=지난 4월 1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예술의 전 당 10주년 기념 교향악 축제」 초청, 귀국 첫 연주회를 가짐.

▲林三鎭(89년 人文大卒·녹색 교통운동 사무총장)=최근 실 용 영어교재인 「영어실력 7배 기르기」(현재판)를 펴냄.

(정리=李美連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 속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송철순 군(90년 人文大卒)·강희선 양=4월 16일 12 시30분.

*장경섭 군(94년 農生大卒)·윤미연 양=4월 18일 14 시.

*석희준 군(95년 自然大卒)·공은영 양=4월 18일 15 시30분.

*김현철 군(89년 自然大卒)·박상희 양=4월 19일 12 시30분.

*이경연 군(91년 師範大卒)·임선미 양=4월 19일 14 시.

*최원희 군(92년 師範大卒)·박미화 양=4월 19일 15 시30분.

*김용건 군(89년 經營大卒)·권해연 양=4월 25일 12 시30분.

*김형섭 군(93년 獸醫大卒)·권도연 양=4월 25일 14 시.

*박형일 군(97년 行大院卒)·박희운 양=4월 26일 11 시.

*장경호 군(92년 農生大卒)·남홍근 양=4월 26일 12 시30분.

*성환진 군(90년 工大卒)·문수정 양=4월 26일 14시.

*박익균 군(91년 工大卒)·신정은 양=4월 26일 15시 30분.

*오세영 군(89년 工大卒)·김정연 양=5월 2일 13시 50 분.

*변우선 군(92년 自然大卒)·천영선 양=5월 2일 15 시30분.

*박희명 군(94년 音大卒)·양옥연 양=5월 2일 17시.

*강호석 군(91년 工大卒)·황미경 양=5월 3일 12시30 분.

*윤용태 군(89년 農大卒)·남선미 양=5월 3일 13시50 분.

*박인호 군(93년 經營大卒)·송정란 양=5월 3일 15 시30분.

*이훈재 군(95년 師範大卒)·김민정 양=5월 5일 12 시30분.

*SCARLATOIV GRIGORE 군(94년 文理大卒)·정현 주 양=5월 9일 16시30분.

*김성준 군(96년 經大院卒)·박소연 양=5월 10일 11 시.

미생물 이용 「씩는 고무」 개발

충남대 李榮河교수



고무는 내구성이 뛰어나 일반적인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는 합성 고분자로 환경오 염의 주범이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신소 재인 「생분해성(씩는) 고무」 를 개발한 李榮河(75년 文理大卒·충남대 교수)등문과 배 재대 김영백교수 연구팀.

李등문 연구팀이 개발한 신소재는 단단한지만 잘 깨

어지는 성질의 것보다 부드러 우나 상온에서 끈적거리는 성질의 것을 합성하여 두개 의 단점을 개선한 미생물 고 분자이다.

고무줄과 같은 탄력성을 가진 데다 녹는 온도가 상온 보다 훨씬 높고 늘어나는 정 도와 강도 등이 실용화 가능 성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같은 생분해성 고분 자의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 서도 중요한 분야로 앞으로 국제 수출시장에서 그란라운 드가 발효되면 분해되지 않 는 고무의 사용은 금지될 전 망이다.

(美)

병든 아들위해 인공심장 제작

단국대 李尙勳교수



선천성 심장질환에 걸린 아들을 위해 5년여의 연구 끝에 심장보조장치를 개발한 단국대 의대 의공학과 교수 李尙勳(83년 工大卒)등문.

재학시절 전기공학과를 거 쳐 제어계측학과에서 박사를 마친 李등문이 93년 생소한 인공심장 개발에 뛰어들게 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선 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 승리군(8세)때문이었 다. 李등문은 어린 아들이 자

신이 왜 아픈줄도 모르고 고 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연구를 결심했다고.

이번에 개발한 「공압식 심 실 보조장치」의 이름도 승리 군의 이름을 따 「VICT」라고 명명했다. 특히 국내에서 세 번째로 개발됐지만 가장 뛰 어난 성능으로 평가 받는 이 장치는 중증의 심장질환자 등이 심장을 기증 받을 때까 지 한시적으로 심장박동을 대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李등문은 앞으로 모교 의 대 安赫(77년 醫大卒)교수 등을 비롯한 연구진과 함께 수많은 동물실험과 연구를 거쳐 실제 심장치료에 이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美)



대한약사회 金熙中회장

“회원간의 단합과 대국민 홍보에 중점”

지난해 12월 각구 약사회 선거를 시작으로 한겨울 내내 약사회를 뜨겁게 달군 제3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지난 2월 27일 결선 투표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金熙中(63년 藥大卒·구로구선거관리위원·학교법인 오성학원 감사)동문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당선 기쁨보다 「단순의약품약국외판매」, 「표준가제폐지」, 「의약분업」, 「한방정책관실 신설」등 약사회 현안의 여러 문제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하는 부담을 동시에 안게된 金동문을 만나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선거기간 중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이번에 모교 약대 동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원래 전문직 종들이 다 마찬가지로지만 우리 동문들도 제약회사의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대의원으로서 투표권이 있는 개국약사들은 매우 적습니다. 다른 대학 동창회에 비하면 반도 안되는 수였지만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약사계의 시급한 문제는.

『회장이 된 후 지난 한달 동안 대한의사협회라든가 한의사회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서로가 이런 다름이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만입니다. 하지만 제 임기동안은 서로의 직능을 존중하고 상호 공존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는 충돌보다는 대화를 우선하여 함께 발전하고 국민에게 사랑 받고 존경받는 약사나 의사가 되어 줬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또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단순의약품약국외판매」나 「표준가제폐지」의 경우도 실제로 유럽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시판되는 약품들도 함량이 아주 극소해서 치료약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약국의 지역분포가 우리

의 40배가 넘게 광활하여 일반 국민들이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따라서 우리 경우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충돌보다 대화 우선하여 존경받는 약사·의사돼야

그나마도 국민들이 불편하다면 앞으로 약국휴일제도 등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더욱이 약품의 안전성은 전문약사의 손을 떠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미국의 경우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콘택600」을 슈퍼에서 팔다가 택

시 기사들이 남용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특수성에 맞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약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된 점은.

『89년 서울시 약사회장으로 전국약사회 사무국전산화와 약국의료보험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중국과 국교를 맺기 전이었는데 연변쪽에 나가 무료의약품 투약 사업을 벌리기도 하는 등의 대민차원의 사업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직약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의약계장이 그동안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것을 시정했고, 약사회의 학술단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하여 고정적인 의약품 치료 정보지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3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회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인선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이사 선임만 남아 있습니다. 모교 동문들이 많이 수고해주셨지만 대화합의 차원에서 타대학 출신들 위주로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의약분업」이나 정부의 직제 개편과 관련 약사업무의 한방관실 이관 등 현안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치열했던 선거만큼이나 회원 상호간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결과 화합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언론, 국민들에게 약사들에 대한 직능과 직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약사회의 올바른 입장을 전하는 홍보 활동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후학들에게 한 말씀.

『서울대의 자부심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치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는 개인이 내세울 수 있는 특성이나 개성을 요구합니다. 학창시절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보통의 사람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학문을 탐구하는 열성과 더불어 자신의 개성을 찾아내고 키울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美)

환경대학원

신임 회장에 全錫洪동문 선출



環境大學院同窓會(회장 朴重培)는 지난 3월 25일 상록회관에서 모교 盧隆熙초대원장을 비롯해 林岡源·朴亨錫·金秉麟 명예회장 등 각계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同會는 이날 97년도 감사보고 및 98년도 예결산을 심의하고 제13대 회장에 全錫洪국회위원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全相伯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鄭清助세양환경공조 회장, 禹旻仙신안건설산업 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감사에 모교 金成洙교수를 새로 선출하고 魯萬永만영엔지니어링 대표를 재선임했다.

한편 전임 박회장에게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는 뜻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술대학

전임 尹학장 공로메달 받아



美術大學同窓會(회장 李信子)는 최근 한국아쿠르트 빌딩에서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1회 발행되는 동창회보 제작 및 배

포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4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그동안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전임 尹明老학장에게 기념메달을 증정했다.

모임예정

금속공학과

4월 17일 정총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羅亨用)는 오는 4월 17일 오후 7시 강남구 소재 만리장성에서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80-7085)

전기공학과

4월 17일 정총

전기공학과동창회(회장 徐廷旭)는 오는 4월 17일 오후 7시 무역회관 51층 무역클럽에서 98년도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880-1794)

사범대학

4월 19일 등산

師範大學同窓會(회장 閔丙峻)는 오는 4월 19일 도봉산에서 친목 등산대회를 갖기로 했으며, 당일 아침 9시 30분까지 도봉산 그린파크텔 앞에 모여 출발할 예정이다. (문의: 871-1479)

농과대학

5월 9일 정총

農科大學同窓會(회장 朴振煥)는 오는 5월 9일 모교 사색의 동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331-290-2106)

공과대학

5월 17일 등산

工科大學同窓會(회장 鄭哲圭)는 오는 5월 17일 모교 신공학관 301동 118호에서 98년도 정기총회 및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877-0568)

田溶星변호사 1천만원 출연

“시각 장애 재학생에게 써 달라”



田동문(左)이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

10여년을 관사로 재직하고 30여년간 성북구에서 전병원(現성모의원)을 운영해온 의사 겸 변호사 田溶星(50년 文理大卒)동문이 지난 3월 30일 본회에 맹인 및 시각장애 재학생에게 써달라며 1천만원을 출연했다.

65년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는 田동문은 30여년간 맹인돕기 운동을 펼

쳐 왔으며 사회봉사 모임인辛亥會의 회장을 맡아 오며 무료 변론과 무료 진료를 해왔다.

본회에서는 田동문의 요청에 따라 98년 2학기부터 시각장애자 김양수(대학원 교육학과)군에게 장학금(1회분)을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한상운(대학원 컴퓨터공학과)군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美)

만평

李元馥



結者解之

간호대학

신입회원에게 환영 메달 증정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3월 21일 모교 강당에서 98년도 신입회원 환영식 및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楊회장을 비롯하여 모교 朴貞浩신임 학장과 많은 선·후배 동문들이 참석, 이날 새로 회원이된 졸업생들에게 기념메달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楊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동문들이 신입회원들을 환영해주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한 것 같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상부상조하

고,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우리도 학교 연구소 등을 이용하여 언제나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朴학장은 『이렇게 제4대 학장으로 여러 동문들 앞에 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내년이면 간호대 신축공사도 거의 마무리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며 여러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다.

의과대학

우수회원 및 지부·동기회 표창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지난 3월 24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鍾信총무이사외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 李회장을 비롯하여 모교 李明哲부학장등 1백20여명의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서 宣鎬榮(48년卒)·文國鎭(55년卒)·金鍾禧

(56년卒)·邊尙鉉(57년卒)·崔虎容(64년卒)·朴陸哲(65년卒)·文鎭洙(73년卒)·崔勝憲(77년卒)동문 등 우수 회원 8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성북구·영등포구·한양대·중앙대·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성남·영동지회 등을 우수 지회로, 14회·20회·25회·27회·28회·34회 동기회를 우수 동기회로 선정해 표창했다.

미대 회화와 동문 모임

「새미」세번째 전시회 가져

지난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종로갤러리에서 미대 회화와 동문 모임인 「새미」(회장 張惠容)가 93년, 94년에 이어 3번째 전시회를 가졌다.

「새미」는 「새로운 아름다움」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회장인 張惠容을 비롯하여 張相宜(63년卒)·孫喜玉(72년卒)·李貞演(75년卒)·朴利善(76년卒)·朴

邵暎(77년卒)·吳淑禮(78년卒)·金嬉瑛(79년卒)·朴銀姬(80년卒)·沈賢熙(80년卒)·李珉柱(80년卒)·鄭鍾美(80년卒)·張蓉姪(83년卒)·朴素賢(84년卒)·安淑娜(84년卒)·金瓊瑄(85년卒)·金成禧(86년卒)동문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원 모두가 활발히 개인전

이나 그룹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미」는 그동안 매월 학술세미나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회화적 발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왔다.

음악대학

기대표 증원키로

音樂大學同窓會(회장 李南洙)는 지난 2월 28일 타워호텔에서 98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임원회의를 가졌다.

李회장을 비롯하여 辛慶昱·李相萬·韓相宇·徐友錫·李鍾一·高重媛·薛容愛·金光姬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李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동문들의 회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해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문들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동창회 조직을 점 조직화하여 분야별로 홍보이사를 두고 기대표도 5명으로 증원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종교학과

동문초청 강연회

종교학과동창회(회장 宋炳瓚)는 최근 98년도 정기총회를 모교 교수회관에서 가졌다.

宋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나라 전체가 외채, 금리, 환율, 물가, 실업 등의 이른바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어딘가 시작이고 어딘가 끝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며, 이 혼돈을 정리하는 하드웨어는 다른 곳의 몫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예술, 철학, 종교를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서로가 좀더 노력하고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李元洪교문(前간행물윤리위원장)이 강연을 펼쳐 참석자 전원에게 열띤 찬사를 받았다.

불어교육과

소식지 10호 배포

불어교육과동창회(회장 李起台)는 최근 강남구 소재의 상제리제뒤편에서 98년도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朴玉茁 명예교수를 비롯,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李회장은 인사말에서 『연초라 동문 모두 각자의 신년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준데 감사드립니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성의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각 기별 인사 소개와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 후 귀국한 동문들의 소개가 있었으며, 노래와 덕담으로 즐거운 여흥시간을 가졌다. 또한 98년도 동문 주소록과 소식지 제 10호를 동문들에게 배포했다.



의대 30회

高永瑾동문 새 회장직 맡아

의대30동기회(회장 徐在烈)는 지난 3월 13일 서초동 소재의 「영림」에서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자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다짐했으며, 총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년도 결산보고 및 회계감사, 98년도 동문주소록 발간과 소식지를 뉴스레터 형태로 전환하는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高永瑾(비뇨기과 원장)동문, 부회장에 鄭

泳德(성형외과 원장)동문, 학내총무에 金翼祥(모교 교수)동문, 학외총무에 朴陽義(경찰병원 방사선과 교수)동문, 감사에 康鎔燮(소아과 원장)·朱永植(이비인후과 원장)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특히 이날 총회는 경제난을 감안, 검소하게 치러졌으며 회원모두가 이런 어려움을 때일수록 더욱 합심, 단합하는 자세를 보여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同會는 취미모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골프모임과 삼공산악회모임을 마련, 적극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언어학과

신임 회장에 全泳杓동문 선임

언어학과동창회(회장 朴泰煥)는 지난 2월 27일 국방회관에서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임원개선을 했다.

신임 회장에 全泳杓(신구전문대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金光植(고려대 교수)동문, 간사에 南承昊(모교 교수)동문, 감사에 禹倫植(부산대 교수)·劉植(변호사)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全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후



배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하겠으며 특히 장학금과 도서기금의 확충을 위해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독어교육과

새 회장에 趙永孝동문 선출

독어교육과동창회(회장 安成權)는 최근 모교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趙永孝(경원대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柳成烈(원광대 교수)·李光淑(모교 교수)동문을 부회장에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소식지를 발간, 배포키로 의결했



으며 주요행사로 5월에 바둑·테니스 대회, 10월에 동문등반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信〉

서울대 트리비아

Q13. 모교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수여한 때는 언제일까요?
A. 1952년 4월. 金斗憲, 李丙巖문학박사, 田豐鎭, 金東一, 元泰常이학박사, 李春根의학박사 등 6명에게 수여했다.

모교소식

98학년도 4천8백38명 입학

鮮于총장 “책임의식으로 미래를 열자”



모교(총장 鮮于仲皓)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1998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鮮于仲皓총장, 崔松和부총장, 기성회장, 보직교수, 신입생, 학부모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鮮于총장은 식사를 통해 『21세기를 열어갈 주인공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는 정신을 가진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며 『조국과 민족의 내일을 위한 책임의식과 학문의 미래를 위한 사명의식이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98학년도 신입생 정원은 작년에 비해 10명이 감소한 4천9백10명이며 미등록자와 등록금 환불자를 합쳐 모두 72명이 미충원돼 최종 등록자 수는 4천8백38명(추천입학정원 포함)이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차례에 걸쳐 신입생과

학부모를 위한 콘서트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가졌다.

宋芝憲(73년 農大卒·방송인)·俞靜雅(89년 社會大卒·방송인)·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1부 「클래식의 향연」은 林憲政(76년 音大卒·모교 교수)·동문의 지휘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프라노 金麟惠(84년 音大卒·모교 교수)·동문, 테너 朴仁洙(68년 音大卒·모교 교수)·동문의 화려한 무대로 펼쳐졌으며 2부 「팝의 향연」은 鄭成朝(66년 音大入·KBS관현악단장)·재즈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재즈 연주가 이어져 신입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물관

수요교양강좌 안내

박물관(관장 崔夢龍)은 3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교양강좌를 개최한다.

강좌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 장제(4월 15일) △시베리아의 고고학(4월 22일)

△제주도의 고고학(4월 29일) △고고학과 자연과학(5월 6일) △중국의 고고학(5월 13일) △전남지방의 고인돌(5월 20일) △가야의 고고학(5월 27일) △한국 고대의 취락과 주거(6월 3일) △수중 고고학(6월 10일) △충청남도의 옛성곽(6월 17일) △농업의 발생과 전개(6월 24일)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적에 제한은 없다. (연락처: 880-5332)

생활과학대학

李基榮학장 취임



지난 3월 12일 李憲英생활과학대학장의 후임으로 소비자학과 李基榮(70년 家政大卒)교수(사진)가 취임했다.

교내 순환버스 회장

「한남장학금」 출연

모교 교내 순환노선버스 한남운수 金台鎭회장이 지난해 1학기부터 매학기 1천만원씩의 장학금을 재학생들을 위해 출연하고 있다.

87년 51번, 52번 좌석버스를 인수한 金회장은 96년 10월 교내 순환도로를 운행하는 413번 지역순환버스를 신설, 모교와 인연을 맺어왔다.

金회장은 매일 한남운수를 이용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5명에게 60만원(인문계)·70만원(자연계)의 「한남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기발전구상」 발표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

모교는 지난 3월 12일 「장기발전구상」을 통해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학과구분을 없애고 현재의 단과대를 「학부대학」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4년동안은 학과구분없이 기초교양 교육을 받고 심화된 전공교육은 대학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해 97년 기준으로 2만4백95명

인 학부생 수를 2010년까지 1만5천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석·박사과정은 9천1백62명에서 1만5천명으로 확대, 학부와 대학원의 학생수 비율을 1대 1로 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천5백여명에 불과한 교수도 2020년까지 3천명으로 증원, 교수 1명당 학생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대 전기공학부

「베스트 티처」 朴榮俊교수

공대 전기공학부 朴榮俊(75년 工大卒)교수(사진)가 졸업생들이 뽑은 「최우수 강의교수(Best Teacher)」로 선정됐다.

올해 졸업생 중 1백79명을 대상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4년 동안 수강한 교수들 가운데 강의를 잘하는 교수 인기투표 결과 朴교수가 최다득표를 얻었다.

지난해 베스트 티처 1호(朴炳國교수·82년 工大卒)에 이어 두번째로 선정된 朴교수는 88



년 모교 교수로 부임했으며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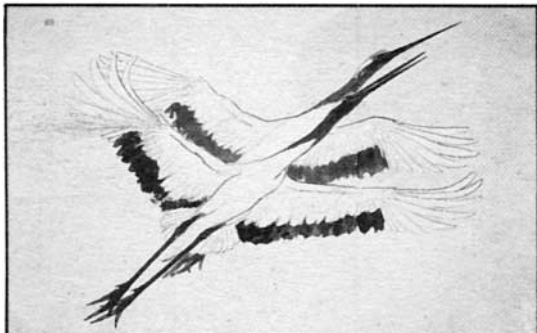
〈變〉

선배님 아세요?

—大學新聞 「대학살롱」 중에서—

이황선생의 한숨

◇옛날 선조대왕 살아계실 적 안동의 도산서원에서는 이황선생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 『내 수업 듣는 것을 게을리 말라. 4백년쯤 후에는, 2백년 후 태어날 위싱턴이란 유명한 사람보다 내가 더 비쌀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 존경의 눈길로 이황선생을 바라보았건만, 「1달러에 1천4백원」, 하늘에서 이황선생 한숨지며 『위싱턴이 많이 컸군. 예전엔 나도 잘 나갔었지』



3월호를 읽고

사명의식 갖고 진리·정의 펼쳐자



모교는 모태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동창은 혈연이다. 서울대학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혈연같은 숙명이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대인의 긍지이다. 그런데 사명없는 긍지는 교만이다.

우리의 모교는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라고 가르쳤다. 법대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행해져라」(Fiat Justitia, ruat caelum)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서울대인들이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는 이 땅에 진리와 정의는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 서울대학교는 출세의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교육의 전당이다.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서울대인에게 있다. 李珍雨(56년 法大卒)법률신문 사장

장학사업 위한

기금 모금 추진해야



그동안 우리나라의 엘리트 인재양성에 선봉자적 역할을 담당해 온 서울대학교의 사명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월 15일자 동창회보에서 98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그동안 장학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 수에 비하여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학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모금사업을 건의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선진국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새 이미지를 심어나갑시다. 郭贊浩(71년 新大院卒)평통자문회의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



지속적인 보건교육 필요하다

成玉姬(68년 看護大卒)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

음식을 먹은 후엔 양치질을 하게 마련이다. 화장실에 다녀와선 손을 씻는다.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일상사이다. 그래서 타고난 습성인양 생각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손씻기나 양치질은 잘 길들여진 생활습관의 하나일 뿐이다. 아이적부터 몸에 배도록 훈련된 터라 그 효력은 평생을 간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동양식이나 지식은 체질화가 중요하다. 머릿속 깊숙이 스며들어 습관처럼,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레 우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

성교육도 마찬가지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어처구니 없는 성의 무지를 자주 접한다. 화장실에서 출산했다는 여학생 얘기가 그런 것들이다. 그럴때마다 성교육 강화다, 철저한 학생지도다, 온통

난리들이다.

그렇다고 어느날 갑자기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성지식 강의를 몇번 다룬다고 능사는 아니다.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해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턴 성장과정에 맞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보건교육의 관심대상은 단지 성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갖가지 사회병리 현상도 해당된다. 흡연이나 약물 오남용, 에이즈 등등. 과다한 영양섭취나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셈이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건강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보건교육이



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보건교육의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학교에서 잘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성인이 된 후 담배를 안피웠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임시위주의 폐습에 밀려

학교보건은 그래서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은 보건교육을 항상 먼발치로 밀어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한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미래다. 미래의 주인공들은 바로 아이들이다. 정녕 아이들을 위하는 일은 무엇일까. 곰곰히 생각해 볼 때다.

대학도 지식·정보 세일즈해야

李那美(85년 醫大卒)신경정신과의원장

언론들까지 합세해 초래한 환란이니 누구를 원망하라.

일예로 청진기면 충분한 것도 환자들은 컴퓨터, 초음파 검사를 해야 안심하고 일반 칼로 수술해도 될 상처도 레이저를 써야 후유증이 적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이런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자들과 터무니없는 의료수가를 피해가는 한 방법으로 비싼 기계와 약품들을 너도나도 수입했으니 그같은 과잉경쟁은 결국 대학과 병원의 부도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아직까지 대학내에는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들이 없는 것이 아닐 듯 싶다. 요즘에는 종신교수제, 객원교수제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교수선발과 관련된 비리가 매스컴에서 자주 터져나오면서 연구업적 하나 없는 무능한 교수들을 정리해고하지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형편없는

위태위태해 보이던 단국대학이 드디어 부도를 냈다니 이제 다른 부실 대학들도 차례로 정리되는게 아닐까 짐작해 보게 된다. 한 때 재단의 위상을 높여주고 자금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의과대학과 대학부설 종합병원 설립을 너도나도 자청했는데 이제는 바로 그 의과대학과 병원들 때문에 대학의 재부가 휘청거린다는 것이다.

과다투자로 재정 흔들려

환율 인상에 따라 도입된 기자재 등의 비용이 결국 대학 재정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앞뒤 가리지 않는 무한경쟁의 과다 중복투자로 인해 나라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대학도 비슷한 惡手를 두었던 것 같다.

제 분수에 맞지않게 호화스럽고 휘황찬란한 것만 좋아하는 소비자인 국민들과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춘 기업, 정부,



도서관 수준과 열악한 실험실 환경 등을 볼 때 이제 대학도 국가나 학부모들의 주머니만 앉아서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세일즈하고 나서야 대학에 필요한 자금을 확충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高談峻論」 되풀이 말자

고압적인 자세로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상아탑속 高談峻論만을 상투적으로 되풀이 한다면 결국 대학은 사회에서 고립될 뿐 아니라 그 존폐위기가 걱정해야 할 날이 이미 와 있는 게 아닐까.

단국대학의 부도는 단순히 그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조금씩 다 공유하고 있는 심각한 병적 징후란 생각이 든다.

웨딩디자이너 박鍾敏동문



도예가 趙顯權동문

명예퇴직후 디자이너 꿈 이뤄



상대 26회 졸업생 모두가 선망의 대상이었던 한국은행 업무부에서 화려한 인생의 출발을 시작했던 한 남자가 자신의 꿈을 쫓아 무역회사인 동국실업(주)으로 자리를 옮겼다.

상사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더 늦게 퇴근하고 회사를 위해서 밤잠을 마다했다. 그런 그에게 전무라는 직함은 너무나 당연했고, 자신이 최고가 되리라는 생각은 기정사실이였다. 그러나 절정의 순간에서 그는 보기 좋게 추락(?)했다.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 그가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위로금 조차 없는 퇴직금 3천만원.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후부터 지하철표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돈을 빌려려 다녔죠. 믿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저를 위해 몇몇 친구들이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의 해원웨딩을 창립했죠』

창업 5년만에 국내 최고의 브랜드가 된 해원웨딩의 디자이너겸 사장 박鍾敏(72년 商大卒)동문의 인생 스토리는 가히 한 편의 드라마다. 전문경영인을 꿈꾸던 잘나가는 직장인에서 실업자로, 퍼머머리에 군화차림을 즐기는 디자이너로 「人生事 塞翁之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박동문이 최근 자서전 「대기업 박전무에서 디자이너 찰스박으로」

(명경출판 刊)를 펴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저 행운이라고만 할 것이다. 40대 중반에 차린 회사이며, 동문들이 모두 걱정만 사양사업이었던 웨딩드레스 제조 부문이었기에 박동문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로 했다. 끈을 끊거나 뽑는 일에서부터 다림질 등의 하드웨어를 하면서 공장 최고의 작업보조가 되어 드레스 제작의 실무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한 3개월이 흐르자 공장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

해원의 고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박동문과 디자이너들, 공장 식구들은 매 시즌마다 80여개의 신중 디자인을 내놓고 있다. 디자인부터 소재의 선택, 디테일한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관찰하며 열정을 쏟고 있는 박동문에게 웨딩드레스는 어떤 의미일까?

『왜 모두들 신부는 순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첫날밤의 신부』

“첫날밤의 신부는 섹시하고 야해야(?)”

는 섹시하고 야하면 안되는 걸까? 모든 신부들이 자신을 청순하게만 표현하고 싶어할까? 좀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신부의 모습을 이제는 바래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서 제 디자인의 모토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해원의 이미지이기도 하구요』

이제는 밀라노의 패션쇼를 꿈꾸는 디자이너 찰스 박으로 더 친숙한 그에게 변화는 신선한 자극이며, 개혁은 생활의 일부이다. (美)

과학도의 열정 도자기에 담아

첨단과학의 문명과 비전있는 과학도에서 흙을 이기고 불을 지피 자연을 구우며 삶을 빚어 나가는 늦깎이 도예가 趙顯權(84년 工大卒)동문.

趙동문이 처음 항공우주공학과를 택하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는 「아폴로 11호」가 달착륙을 했다는 것이 떠들썩했던 시기였다. 그 장면을 보며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운 趙동문은 79년 모교에 입학했으나 재학당시 「80년 민주화의 봄」과 「광주민중 항쟁」 등으로 여러 번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그후 모순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장미빛 미래의 꿈을 저버리고 도예의 길을 택하게 됐다.

『첨단과학의 편리함보다 투박한 자연이 더 편하고 좋다』고 말하는 趙동문은 처음 도자기를 대할 때만해도 그 방면에 문외한이었다. 趙동문은 이런 생소한 도예를 배우기 위해 독학으로 도자기 굽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옛 도요지를 뒤지며 박물관, 다른 작가의 요장 등지에 공부가 될 만한 곳은 부지

“과학의 편리보다 투박한 자연이 좋다”

런히 찾아다닌 趙동문은 그때를 회상하며 『살아있는 공부였고, 힘들었지만 즐거웠다』며 『이러한 나의 공부 내력이 내 작업의 독자성과 자생력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趙동문의 도예에 대한 열의와 노력에 대해 주변의 반대는 실로 굉장했다. 하지만 趙동문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주위의 반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결국 후회가 될 것 같아 자신의 생각에 매진했다. 그러나 趙동문에게도 시련이 없었



던 것은 아니다. 작업의 부진, 경제적인 면, 외로움, 결혼에 대한 처가의 반대 등 기타의 여러 제반 조건에 의해 흙을 만진지 2년만에 하산의 길을 택했다. 그후 정보통신회사인 「DACOM」에 입사 4년 반간의 회사 생활을 가졌다. 하지만 趙동문은 자신의 내면에서 용솟음치는 도예에 대한 열정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후 다시 趙동문은 자신의 열정을 작품에 쏟으며 그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 나갔다. 趙동문의 작품에 대한 소재는 전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올해 첫 작품전을 가진 趙동문은 앞으로 세계미술시장에 진출할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전통이 세계시장에서 독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풍부히 하려면 여러 우물을 파는 것도 괜찮은 방법의 하나』라고 말하는 趙동문을 볼 때 이 시대의 높은 명성과 화려한 세계만을 꿈꾸며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자가 아닌가 싶다. 현재 趙동문은 경기도 여주의 산자락에 두메공방이라는 작업실을 마련, 생활하고 있다.

(信)



⑪ 동아제약

「박카스」로 국민의 건강 일깨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가파른 언덕길, 무거운 청소수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환경미화원 아버지와 대학생 아들이 파란 새벽 공기속에 덤덤한 어조로 대화를 나눈다.

『힘들지! 이젠 따라나오지마』 『필요, 아버지는 매일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화면에는 파란 마크가 선명한 박카스 한병이 등장한다.

화려하고 색시한 화면보다 진실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광고로 만들어 성공한 동아제약은 회장인 姜信浩(52년 醫大卒·本會 副會長)동문의 경영철학에서 이미 기업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단일제품 고집으로 승부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큰 희망은 없습니다. 생명은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여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姜회장은 입버릇처럼 동아제약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1932년 위생용품도매상인 「강중희상점」으로 시작하여 해방이후 본격적인 제약회사로 성장, 57년에는 페니실

린과 스트렙토마이신 등의 항생제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1963년 단일제품으로는 가장 성공적인 자양강장제 박카스 D를 생산하여 이후 순 매출액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회사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姜信浩 회장



俞忠植 사장

재계 50위권에 오른 70년대에도 한 번 팔지않고 이제껏 오로지 제약업을 비롯한 연계업종만을 고집해온 동아제약은 「장인 정신」이라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姜회장을 비롯하여 박카스 광고 신화의 주인공 俞忠植(61년 商大卒)사와 신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姜회장의 차남 姜文錫(83년 工大卒)부사장, 張安秀(67년 藥大卒)·韓圭興(68년 藥大卒)전무, 玄德聖(70년 藥大卒)·金源培(71년 藥大卒)·洪東杓(71년 藥大卒)·權琮遠(73년 藥大卒)·孔賢杓(74년 藥大卒)·朴宣

根(74년 藥大卒)상무 등 많은 동문들이 동아제약에서 일하고 있다.

80년대 초반에 이르러 동아제약은 경영의 다각화와 함께 미국의 존슨&존슨, 일본의 오츠카·후지사·신동공업 등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또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은 무엇보다도 정밀도와 안전성 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연구와 시설에도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85년 한국 제약기업으로는 최초로 정부기관으로부터 KGMP(한국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업체로 지정되었으며, 88년에 설립한 용인 연구소도 국내 최초로 KGLP(한국우수약품안전성시험

관리기준)연구소로 지정되어 국립보건원의 검정 없이 자체 검정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동아제약의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국제화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95년에 총 5백40만불을 투자하여 중국 상해 근교에 「蘇州康寶益飲料有限公司」를 설립하여 지난 97년 상반기에 박카스 에프의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 12억 중국의 피로를 잠재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중이다.

국내 첫 우수업체로 지정

내실있는 경영으로 불황속에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동아제약은 지난해 4월 「2차 민간방송사업지구」의 용인·평택 지역 사업자로 선정되어 오는 2000년까지 14만가구를 가입자로 확보, 이를 바탕으로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을 조기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제 창업 66돌을 맞은 동아제약은 거침없는 전진과 끝없는 변신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성숙된 제약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美)



동아제약연구소

경제를 살립시다

⑫ 국제상사

세계 석권 눈앞의 「프로스펙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국가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국산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어느 때 보다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있다.

외제품 선호풍조가 뿌리깊은 스포츠용품시장에서 1981년 출범 이래 신발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며 한국을 대표하는 순수 국산 전문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국제상사가 바로 그 주인공.

국제상사는 국산품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IMF체제는 시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광고가 유행처럼 번지는 현실에서 이와는 상관없이 「품질을 갖춘 국산」브랜드로서 자존심을 지켜오고 있다.

「품질제일주의」원칙 삼아

이미 지난 96년 전국의 1천5백명을 대상으로한 전문 리서치 기관(리서치 앤 리서치)의 설문조사 발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상표 중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로 입증된 프로-스펙스는 이같은 사실을 여지없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프로-스펙스의 성공은 IMF체제 이후 사회전반으로 소비재제 운동확산에 따

른 극심한 내수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산」브랜드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당당히 요구하는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 톱 브랜드가 진출한 1백여 국가 중 유일하게 자국 브랜드로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프로-스펙스는 Professional Specification의 준말로 「프로 선수들이 착용할 정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제상사는 83년 국내 최초로 스포츠제품 과학연구센터를 만들었으며, 95년에는 스포츠공학팀을 운영하는 등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신발분야에서는 높은 내마모성의 특수 고무(AI-1000)와 충격흡수 소재, 공기순환장치 등을 개발해 내는 등의 성과를 일구었으며, 94년 운동화부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ISO-9001인증을 비롯 신발업계 유일의 「품질경쟁력 우수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기술개발과 프로-스펙스 신발제품의 우수성 공인은 국제상사가 지향하고 있는 품질제일주의 노력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이같은 기술축적으로 국제상사는 86년 프랑스 4대 신발회사에 속해 있는

사택社에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첫 상품수출을 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브랜드의 사용, 제조기술, 기계·생산설비 등 유무형의 노하우를 수출하는 라이선싱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는 멕시코, 터키, 베트남 등 17개국과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있다. 이는 IMF체제 극복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의 수출지향 국가정책에 국제상사는 한발 앞서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상사는 현재 주력부문인 프로-스펙스 브랜드 외에 골프 브랜드인 「프로-메이트」와 아동용 「아티스」 등 3개의 순수 국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제일의 세계 제일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산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 뛰는 국제상사의 사령탑에는 바로 金鎔九(65년 法大卒)사장이 있다.



金鎔九 사장

92년부터 3년여 국제상사 브랜드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金동문은

누구보다 브랜드 사업사정에 밝은 적임자로 그를 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金동문과 함께 국제상사를 이끌어 나가는 모교의 동문들 중에는 국제-아데텍스 대표이사(인도네시아 주재)로 있는 李圭衡(70년 法大卒)동문과 각 사업부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張瑞榮(73년 法大卒)동문 등이 현재 맹활약 중이다.

국산 브랜드로 IMF 극복

국제상사는 「프로-스펙스」등 자체 브랜드의 최고 품질과 기능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할 야심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난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국제상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信)



국제상사 사옥

동문기고

책은 社會間接資本이다

朴琪鳳(70년 商大卒)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우리나라의 出版文化가 낙후되고 영세하다는 것이야 전혀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금년 2월 이후 도매서점들의 연쇄부도를 계기로 출판업계의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어서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그후, 출판계의 절규에 가까운 지원 요청에 대하여 정부에서 『5백억원의 자금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그 돈 어떻게 쓸 것이냐』는 듣기 민망하고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었다.

불경기가 되면 더 많은 책을 읽어서 그것을 자기발전의 기회로 이용하는 선진국 사람들과는 달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선 책값부터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昨今の 출판계의 위기는 바로 이런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몇 백억원의 금융지원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출판지원 정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재정지원만이 능사아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경제·경영 관련 책들을 주로 출판해 오기를 20년 가까이 한 나는 「經濟發展」과 「出版」과 「책읽기」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가 비교적 많고 그것을 話頭로 삼을 때도 많다. 그리고 「出版」과 「책읽기」의 측면에서 한 사회의 장래를 저울질해 보는 버릇도 생겼다.

公教育의 質과 內容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데다 도서관 관련 정책은 후진국보다 더 후진인 사회, 出版과 책 읽기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인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나라, 책 읽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그런 사회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국민소득 수준은 몇 천 달러나 될까?

天刑처럼 다가온 IMF체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崩落 조짐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부실한 기초위에 세워진 다리나 고층건물이 그 荷重을 견디지 못하여 무너져 내리듯이 出版文化의 기초가 부실하고 책 읽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경제발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도 우리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경위야 어찌 되었건 우리는 이제 IMF체제하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이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창의력 생산성 높아져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자세로 기초를 다지는 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책은 소비의 측면에서는 公共의 財貨이고 생산적 측면에서는 社會間接資本이다. 그것의 적극적인 소비를 통하여 한 사회의 창의력도, 노동의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책을 만들어내는 出版産業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길은 바로 책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전환과 함께 「出版·學術振興基金」(假稱)으로 한강 다리 두 개 정도 놓을 수 있는 돈을 財政投資하는 것이다. 출판과 학술의 落後 또는 振興과 한강 다리 두 개 놓을 정도의 財政支出, 우리 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볼 일이다.

건강을 지킴시다

어깨 결림과 오십견

金棟鉉(85년 社會大卒)오행벌침연구회장

어깨 결림(견비통)은 팔에서 어깨에 걸쳐서 다르게 나타난다. 40대 전후로 자주 나타나며 직업상 심한 노동을 하거나 만성적으로 바른 자세를 하지 않는 경우, 스키, 테니스, 골프, 스케이트 등 운동을 한 후 또는 심한 스트레스와 나쁜 운전습관으로 어깨 결림이 잘 일어난다.

나쁜 운전습관이 원인

오십견은 50세 전후해서 흔히 있는 질병으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 일

어나며 어깨가 딱딱하게 굳거나 아프다. 우리 몸의 대사작용 또는 혈액순환의 장애로 관절조직에 염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이 병은 어깨에 통증이 오고 심하면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으며,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고 뒤로 젖힐 수도 없게 된다. 한의원에서는 견용, 골견풍 등으로 불리우며 그 원인을 다양하게 보고 있어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분명하다. 목 근육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 관절 안쪽의 임파액이 정체되거나 어깨 주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졌을 때



생긴다.

이러한 어깨 결림과 오십견의 경우 지압과 마사지를 오행벌침요법과 함께 하면 효과적이다.

목뒤의 경부근육의 긴장과 머리전체를 지탱하는 견갑골과 어깨 쪽의 근육 긴장 및 스트레스를 풀어주어야 한다.

마사지로 근육 긴장 풀어

우선 목뒤의 경부근육과 견갑골 선을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가볍게 마사지

한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약 10회 정도 눌러준다.

강하게 마사지 할 부분은 손가락 외에도 주먹을 쥐거나 아니면 기구를 통해서 지압식 마사지를 해주면 된다.

그러나 너무 집중적으로 한 곳에만 힘을 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약 20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꾸준한 마사지와 지압을 하고 오행벌침으로 주요혈을 시술한다.

특히 심한 스트레스와 火가 오르는 경우 水를 강화하는 방법-신장과 방광을 보하는 방법으로 시술한다. 결론적으로 어깨 결림과 오십견은 그 원인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오행벌침과 지압, 마사지를 병행하면 쉽게 치유된다. (한국오행벌침연구회: 3471-2558)

필자소개 : 중국침구전문의
주요저서 : 신비한 오행벌침요법,
정통오행지압 백과

문화
단신

新刊

서울대학교 교수 40년 —전향적 회고— —王仁權 著



모교 명예 교수인 王仁權(55년 農大卒)동문이 교수로 봉직한 40년의 생활을 자서전적 단편들로 엮어 한권에 담았다. 도서출판 한림저널(대표 鄭秉起·57년 農大卒)에서 펴낸 이 책을 통해 작금에 쏟아져 나온 교수비리 사건에 반하여 소신있고 강직한 교수상을 엿볼 수 있다. <한림저널사刊·값 10,000원>

생명 세탁 —文國鎮 著



고려대 명예교수인 文國鎮(55년 醫大卒·학술원 회원)동문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틈틈히 메모한 90여편의 시와 사진을 모아 정리해 놓았다. 앞으로 여행을 설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연과 역사와 만나고, 현지의 관습을 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본다. <청년사刊·값 5,000원>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印敬錫 著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으로 재직중인 印敬錫(68년 法大卒)동문이 정부에서 20여년간 사회복지정책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제, 사회보험제, 공적부조제도 등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묶어 책을 펴냈다. 印동문은 2천년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나남출판사刊·값 16,000원>

시장중심 경영: 신 마케팅 컨셉의 적용 —盧榮成 外 5人 譯



경영학과 교수 6명이 美다트머스대학 교수(프 리 데 릭 E. 웨스터 2세)의 저서를 우리말로 옮겨 놓았다. 安吉相(73년 經大院卒·충북대 교수), 吳泰鉉(73년 師大卒·강원대 교수), 盧榮成(78년 農大卒·강릉대 교수), 李圭玟(79년 師大卒·한남대 교수), 田仁秀(79년 師大卒·홍익대 교수), 吳昌昊(82년 經營大卒·한신대 교수)동문이 공동으로 작업한 이 책은 IMF시대 청산과 사업구조 조정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겪으면서 깨친 미국의 지혜를 집약해 놓고 있다. <석정刊·값 12,000원>

김구 선생의 삶을 따라서

—金祐銓 著



金祐銓(7기 AMP)광복회 부회장이 회고록—마지막 광복군의 이야기를 펴냈다.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일본군 학병 징집, 광복군에 합류, 해방후 김구선생 비서로 활약한 삶 등을 담담하게 기록했으며 논문「김구 통일론」,「광복군과 미국 OSS의 공동작전에 관한 연구」및 광복군 시절에 쓴 일기를 함께 담았다. <교문사刊·값 8,000원>

유네스코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權泰坡·62년 法大卒)가 「과학과 윤리」분야(7편), 「환경」분야(3편)의 글을 번역, 계간지 봄호(4호)를 펴냈다. 매년 4회에 걸쳐 정기구독회원(문의: 568-9358)에게 배포되고 있는 이 책은 유네스코본부에서 펴낸 간행물 중 특징주제별로 글을 담아놓음으로써 유네스코의 활동상을 읽을 수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刊·값 4,000원>

公演

필하모니아 현악4중주 제15회 정기연주회

—4월 24일 세종문화회관
88년 2월에 창단돼 연 2회의 정기연주회와 자선음악회 등을

펼치고 있는 필하모니아 현악4중주단이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鄭勝榮(71년 音大卒·제1바이올린)·鄭光春(76년 音大卒·제2바이올린)·李承烈(72년 音大卒·비올라)동문이 KBS교향악단 이재규(첼로)씨와 함께 공연한다. (공연문의: 세실예술기획 253-6295)

李善伊바이올린독주회 —4월 27일 세종문화회관

현재 모교와 경원대,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에 출강중인 李善伊(88년 音大卒)동문이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美워싱턴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李동문은 이날 베토벤, 사라사테, 멘델스존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음연 543-5331)

許元淑피아노독주회 —4월 28일 예술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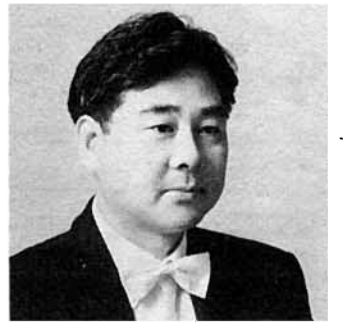
호서대 음악학과 교수인 許元淑(81년 音大卒)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연다.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중국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許동문은 이날 바흐, 베토벤, 드뷔시, 리스트 등의 작품을 들려준다. (공연문의: 피아노포르테 497-1973)

서울챔버앙상블 제13회 정기연주회

—4월 29일 세종문화회관
74년 뉴욕에서 창립된 서울

챔버앙상블은 81년 미국 실내악콩쿠르에서 1등으로 입상하는 등 최고의 앙상블 연주단체로 격찬받은 바 있다.



金準次 음악감독

제13회 연주회에서 음악감독이자 리더인 金準次(63년 音大入·피아노)·鄭孝鍊(88년 音大卒·비올라)·金東鎭(63년 音大入·클라리넷)동문과 서울시립교향악단 金英準(바이올린)악장, 서울신포니에타 수석주자인 金철호(첼로)씨와 함께 모차르트, 아렌스키, 슈만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세실예술기획 253-6295)

張仁禎피아노독주회 —5월 2일 예술의 전당



상명대, 건국대 등에 출강하고 있는 張仁禎(71년 音大卒)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열고 헨델, 쇼팽, 라벨, 리스트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음연 543-5331)

(정리=安興燮기자)

特志獎學會 장학기금 출연안내

◆목 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관악회」 산하에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기부와 출연(현금 및 현물)에 의한 특지장학회를 설립, 운영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모교 재학생과 교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

1. 기부금 전액을 안정적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운영합니다.
2. 예금이자 70~80%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에 사용하며, 20~30%는 물가상승률,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여 원금에 산입함으로써 출연기금의 원금을 영구히 보전합니다.
3. 출연자에게 매기 보고를 통하여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4. 지급대상자는 출연자가 추천·선정하며, 직접 대상자에게 장학금수여식에서 전달합니다.

◆특지장학회 설립시 장점

- 장학재단 설립의 어려움이 해소되며 별도 비용없이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출연한 기금 전액이 장학금 및 교수연구비로 사용됩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지장학회 설립현황

장학회명	출연장학금	지 급 내 역
아남 (김주진)특지장학회	5억원	아남그룹 임직원 자녀중 서울대 재학생 등록금
홍성대 "	3억원	상산고등학교 졸업생중 서울대 재학생 등록금
이길여 "	1억원	인천신명여고 졸업생중 서울대 입학생 등록금
김찬숙 "	1억원	서울대 치대 교수에게 연구비 지급

◆참여자 범위 및 출연형태

동문, 학부모, 동문기업체, 서울대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독지가, 기관, 단체 등 제한이 없으며, 출연형태도 현금·주식 및 유가증권·기타자산(부동산, 기타 귀중품 등)으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출연방법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처 전 화 (02)702-2233 / 팩 스 (02)703-0755

정년(명예) 퇴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15분이 지난 2월 28일 정년(명예) 퇴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한국시 연구에 외길 인생 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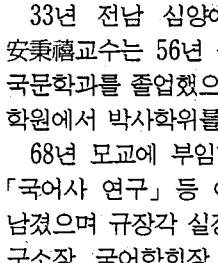


金容稷 교수·국문학

32년 경북 안동 출생인 金容稷교수는 58년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77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에 부임하여 「한국시연구」, 「한국근대시사」, 「한국현대시사」 등 50여종의 저서를 남겼으며 문예진흥원 자문위원, 문화부 자문위원, 현대문학연구회장, 한국비교문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후학 양성과 한국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규장각 실장, 국어학회 회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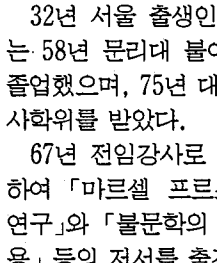


安秉禧 교수·국문학

33년 전남 심양에서 출생한 安秉禧교수는 56년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77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68년 모교에 부임한 安교수는 「국어사 연구」 등 여러 저서를 남겼으며 규장각 실장, 인문학연구소장, 국어학회 회장, 국립국어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30여년간 국어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대학원 중심대학의 중추 역할



洪承五 교수·불문학

32년 서울 출생인 洪承五교수는 58년 문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으며, 75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7년 전임강사로 모교에 부임하여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연구」와 「불문학의 번역 및 수용」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洪교수는 96년 대학원장에 재직하면서 모교가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洪承五 교수·불문학

한국 동양사학계의 산 증인



閔斗基 교수·동양사학

32년 전남 해남 출생인 閔斗基교수는 55년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 74년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69년 조교수로 모교에 부임하여 중국근·현대사의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면서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閔교수는 역사학회 총무, 동양사학회 편집 간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경제학 연구 기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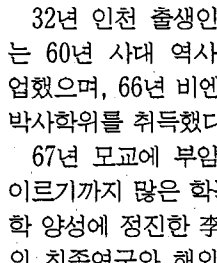


林鍾哲 교수·경제학

33년 서울 출생인 林鍾哲교수는 56년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59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63년 전임강사로 모교에 부임하여 경제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경제학 개론」을 비롯 10여편의 저서와 1백여편의 논문을 발표, 경제학 연구에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향신문 논설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화인류학·가족협회 이끌어



李光奎 교수·인류학

32년 인천 출생인 李光奎교수는 60년 사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66년 비엔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67년 모교에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李교수는 한국의 친족연구와 해외교포 연구에 대한 지대한 업적을 남겼으며 문화인류학회 이사장, 한국가족협회장, 재미 한인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李光奎 교수·인류학

美 IEEE 회원으로 맹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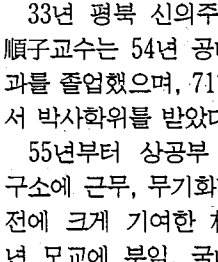


朴永文 교수·전기공학

33년 중국 출생인 朴永文교수는 56년 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71년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63년 모교에 부임하여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장, 대한전기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 전기공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회원으로 선출되는 등 관련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무기화학공업 발전 기초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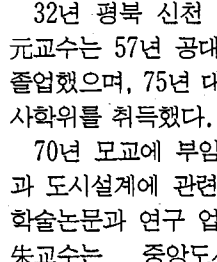


朴順子 교수·재료공학

33년 평북 신의주 출생인 朴順子교수는 54년 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71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55년부터 상공부 중앙공업연구소에 근무, 무기화학공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朴교수는 73년 모교에 부임, 국내 학술잡지에 1백20여건의 논문을 발표해 96년 「훌륭한 공대 교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도시계획·설계 업적 뛰어남



朱鍾元 교수·토목공학

32년 평북 신천 출생인 朱鍾元교수는 57년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했으며, 75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0년 모교에 부임해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에 관련된 80여편의 학술논문과 연구 업적을 이룩한 朱교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대한국토계획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朱鍾元 교수·토목공학

한국작물학회서 주도적 활동



李弘祐 교수·농학

32년 충남 당진 출생인 李弘祐교수는 56년 농대 농학과를 졸업했으며, 58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66년 모교에 부임하여 1백40여편의 많은 연구논문 및 후학양성에 정진하였으며, 한국작물학회 회장, 아세아 작물학협회(ACSA) 초대회장, 모교 농업개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관련학회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이룩했다.

「농업유전학」 발전에 한 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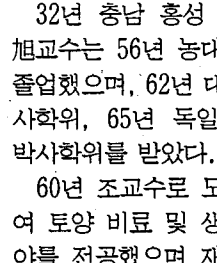


沈載冕 교수·농학

34년 부산 출생인 沈載冕교수는 57년 농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했으며, 73년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64년 전임강사로 모교에 부임하여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혼신을 기울인 沈교수는 정년을 2년 앞두고 이번에 명예퇴직을 했다. 우리나라 농업 유전학을 이끌어온 주역인 沈교수는 재직중에 모교 학과장, 상록사 사감 등을 역임했다.

한국토양 비료·영양학에 공헌



林善旭 교수·농화학

32년 충남 홍성 출생인 林善旭교수는 56년 농대 농화학학과를 졸업했으며, 62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65년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0년 조교수로 모교에 부임하여 토양 비료 및 생명영양학 분야를 전공했으며 재직중에는 학과장과 농업도서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농학회, 한국토양비료학회 등에서 학술활동을 펼쳤다.



林善旭 교수·농화학

조각계의 대들보로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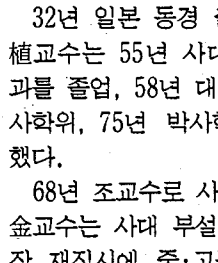


崔鍾泰 교수·조소

32년 충남 대전에서 출생한 崔鍾泰교수는 58년 미대 조소과를 졸업했으며 70년에 전임강사로 모교에 부임, 우리나라 조각계를 이끌어온 주역으로서 수많은 개인전 및 초대전시회를 가졌다.

40여년간 소녀를 주제로 조각상을 만들어 「소녀상 화가」로 유명한 崔교수는 한국 조각의 대들보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중·고교 영재교육에 크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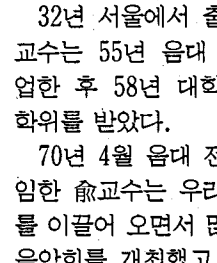


金年植 교수·수학교육

32년 일본 동경 출생인 金年植교수는 55년 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 58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75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68년 조교수로 사대에 부임한 金교수는 사대 부설 교육연구소장 재직시에 중·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를 주관하여 활성화시켰으며 중·고등학교 영재교육에 크게 기여했다.

음악의 세계적 수준 앞당겨



兪泰烈 교수·성악

32년 서울에서 출생한 兪泰烈교수는 55년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후 58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70년 4월 음대 전임강사로 부임한 兪교수는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 오면서 많은 독창회와 음악회를 개최했고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재직중에는 학과장 및 연주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兪泰烈 교수·성악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회비를 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동창회 운영과 모교지원 활동에 밑거름이 됩니다.
98년도 회비납부를 위한 첫 지로용지는 4월중 발송예정입니다.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理事 : 98년 1월 7일~3월 9일·一般 : 98년 1월 6일~3월 9일〉

관 약 회

▲이 사 金道昶= 30만원

상 임 이 사

▲李濟薰 신대원동창회장= 20만원

이 사

◇家政大學
▲서병숙⁹⁹한양대 교수

◇工科大學
▲김광웅⁶⁶KIST 부장
▲김윤기⁶³진시스템 회장
▲박찬모⁶³포항공대 교수
▲박희석⁶⁷로렉스기계 회장
▲윤문섭⁶²태경ENG 회장
▲윤봉태⁷⁰호남정유 상무
▲최민호⁶⁴홍익대 교수
▲홍석의⁶³경원산업 회장

◇農科大學
▲윤석룡⁶⁸쌍용ENG 전무

◇文理科大學
▲이기원⁶⁶정신문화연구원
▲조규배⁷⁰효림모라 대표
▲한영우⁶²서울대 교수

◇法科大學
▲김길환⁶⁶국회의원
▲김대진⁶³변호사
▲목영준⁷⁸청주지법부장판사
▲박인수⁶¹변호사
▲이원택⁶¹중소기업연구원장
▲전병식⁷⁴인천지법부장판사
▲최기정⁶⁴한전 관리본부장
▲황진호⁶⁶변호사

◇師範大學
▲김영식⁶⁷前대한교원공제회
▲유광현⁴⁸춘강학원 이사장
▲윤필희⁵⁶당곡고교 교장

◇商科大學
▲김덕기⁶⁶펜타항공 대표
▲김정현⁵⁸대신전연 회장
▲이용언⁶⁵롯데호텔 전무

◇藥學大學
▲김사웅⁶⁵前국제약품공업
▲박사룡⁶⁶변리사
▲오원식⁶⁰태평양화학부사장

◇醫科大學
▲김병규⁶¹서울의원장

▲김인호⁷⁸내과의원장
▲박신근⁶⁸서울직접치병원장
▲오정성⁷³산부인과의원장
▲최석구⁷⁷백병원 내과과장

◇齒科大學
▲방달호⁶³방치과의원장
▲임봉섭⁶³순천치과의원장
▲정종평⁶⁹서울대 교수
▲최옥환⁶¹치과의원장

◇大學院
▲안무혁⁶²발전연구원 회장

◇環境大學院
▲이평재⁷⁵한국지하공간협회

일 반

◇人文大學
▲유재훈⁸³

◇社會科學大學
▲민선식⁸² ▲서병일⁹⁴
▲서왕진⁸⁹ ▲송동섭⁸⁵
▲장홍석⁸⁹ ▲최점배⁸⁶

◇自然科學大學
▲박배호⁹³ ▲박태준⁷⁸
▲정인채⁸⁶

◇家政大學
▲류지수⁸⁷ ▲유경순⁶⁵
▲조은자⁶⁵

◇看護大學
▲김윤미⁸⁴

◇經營大學
▲이유재⁸² ▲이형주⁹⁵

◇工科大學
▲강석봉⁸⁰ ▲강영진⁶⁷
▲고영찬⁷¹ ▲곽은영⁶⁹
▲김건호⁹⁶ ▲김광수⁷⁴
▲김기창⁶³ ▲김만호⁹³
▲김선재⁸⁶ ▲김성남⁷³
▲김성준⁷⁰ ▲김순환⁸⁰
▲김여근⁷⁶ ▲김엽동⁵²
▲김용철⁶² ▲김재필⁸⁴
▲남상국⁶⁹ ▲박근준⁸¹
▲박성훈⁸⁰ ▲박우상⁵⁸
▲박유준⁹⁵ ▲박재룡⁷²
▲박정렬⁷⁴ ▲박진호⁹⁴
▲박태호⁹⁰ ▲박희수⁵⁸
▲백 훈⁹⁰ ▲백성현⁹²
▲서정욱⁸⁸ ▲손영란⁹⁵
▲송경석⁸² ▲송인호⁸⁰
▲신 영⁶⁵ ▲신갑성⁶⁷

▲신상용⁹⁴ ▲신충섭⁷²
▲신호정⁹¹ ▲윤호기⁷⁴
▲이달호⁸² ▲이도재⁶³
▲이성호⁶⁶ ▲이승해⁷⁰
▲이용채⁹² ▲이원호⁹⁵
▲이윤종⁸⁴ ▲이익호⁶⁵
▲이인태⁶⁷ ▲이장하⁹¹
▲이재성⁴⁶ ▲이재현⁷¹
▲이한선⁷⁷ ▲임창현⁶⁶
▲임철웅⁷⁰ ▲장기주⁴⁷
▲정우상⁶³ ▲정태신⁹²
▲조병호⁶⁹ ▲지원식⁸⁹
▲최윤철⁷³ ▲한종훈⁷⁴
▲허영철⁷⁴ ▲현범수⁷⁹

◇農科大學
▲길원진⁸⁸ ▲성영수⁵²
▲신준우⁵⁶ ▲유광일⁷³
▲이형구⁶⁸ ▲조금철⁶³
▲팽기석⁶⁶ ▲홍태식⁸¹

◇文理科大學
▲권태환⁶⁵ ▲김 구⁶⁸
▲김명건⁷⁰ ▲김방이⁶⁸
▲김성미⁶⁸ ▲김연숙⁷²
▲김영작⁶⁴ ▲김정환⁶⁶
▲김제완⁶⁸ ▲김현배⁶⁴
▲박영애⁶⁰ ▲사공정자⁶³
▲송재곤⁶⁵ ▲심양홍⁷¹
▲안국정⁷⁰ ▲양완모⁷⁴
▲유덕상⁷² ▲윤건신⁶⁵
▲윤규호⁶⁴ ▲윤홍로⁶⁰
▲이길원⁷¹ ▲이윤오⁷⁰
▲임정빈⁷⁴ ▲전영애⁷³
▲정민희⁶⁰ ▲표재명⁵⁸

◇美術大學
▲박양자⁶⁸ ▲임송자⁶³
▲최기숙⁶⁸

◇法科大學
▲김준환⁶⁴ ▲성창모⁶⁴
▲이완열⁸⁰ ▲이흥권⁷⁶
▲임휘윤⁶⁷ ▲장상익⁷⁶
▲황의인⁷⁸

◇師範大學
▲권경오⁶⁶ ▲김준말⁵⁹
▲김한주⁸³ ▲김형주⁵⁶
▲박종익⁸⁷ ▲백명기⁵⁵
▲서갑수⁶⁰ ▲신규숙³⁹
▲유효숙⁵¹ ▲이강섭⁷³
▲이강훈⁵⁴ ▲이광석⁶³
▲이영덕⁵² ▲조경태⁸¹
▲지태성⁷⁹ ▲최준호⁸⁵

◇商科大學
▲노창환⁶⁷ ▲성낙정⁴⁴
▲엄영석⁵⁸ ▲우제화⁷¹
▲이국희⁶² ▲이정웅⁷⁰

▲전영주⁵⁵ ▲황건호⁷⁴
◇獸醫科大學
▲김윤수⁷⁸ ▲이기주⁶⁷

◇藥學大學
▲김현제⁵⁵ ▲맹민영⁶⁰
▲박기숙⁹⁰ ▲유재하⁸²
▲이미영⁹⁶ ▲이흥숙⁷²
▲임종석⁸²

◇音樂大學
▲김려진⁸⁸ ▲김혜자⁶⁸
▲박휘암⁹⁶ ▲송태균⁶⁵

◇醫科大學
▲김덕호⁴¹ ▲김현규⁶⁹
▲노국룡⁵⁸ ▲박용섭⁵⁶
▲배진기⁵⁷ ▲변창세⁷⁸
▲신철진⁸⁹ ▲유영삼⁸⁶
▲함정욱⁹³ ▲허 용⁵⁹

◇齒科大學
▲권기홍⁸⁴ ▲김경원⁸⁷
▲김성곤⁷² ▲김정호⁸⁶
▲김종관⁷⁰ ▲김진규⁶²
▲박명규⁶⁷ ▲손영화⁸⁹
▲손화진⁷¹ ▲신효근⁷⁵
▲안경민⁸³ ▲유태정⁷²

▲윤도철⁸⁷ ▲윤종숙⁶²
▲이상건⁸⁴ ▲이태구⁵⁶
▲장은하⁸⁹ ▲주영숙⁵⁹

◇大學院
▲김정수⁹⁵ ▲문형근⁸¹
▲원상봉⁸³

◇新聞大學院
▲김유원⁷⁴ ▲심재주⁶⁸

◇環境大學院
▲윤대식⁸³ ▲전희상⁷⁹

◇최고경영자과정
▲김길현²⁴ ▲김승유¹⁹
▲김승제⁴⁰ ▲송보열²¹
▲안영복¹ ▲우국일⁸
▲윤덕영³⁹ ▲윤석준¹¹
▲이병달²⁸ ▲이종철¹⁰
▲차석용³⁷ ▲최병면⁴¹

◇국가정책과정
▲강상원²² ▲박순태²⁶
▲손정열³⁴ ▲유홍모⁴⁴

◇고급금융과정
▲김상익¹⁰ ▲김선정⁴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98년 1월 1일~2월 28일〉

개 인

◇人文大學
▲김기호⁹³

◇社會科學大學
▲최기철⁹⁶

◇經營大學
▲이득규⁸¹

◇工科大學
▲김인호⁹⁶ ▲박용로⁹⁰
▲서정일⁹⁶ ▲조소훈⁹²
▲최병석⁹⁵

◇農科大學
▲박응봉⁵⁴

◇文理科大學
▲허성희⁷⁵

◇師範大學
▲박감순⁶⁷

◇商科大學
▲강선필⁶²

◇獸醫科大學
▲배윤일⁹⁷

◇藥學大學
▲김희진⁹²

◇醫科大學
▲이상국⁵³

◇大學院
▲김도현⁷⁶

◇최고경영자과정
▲정태일⁴⁰